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김대욱
편집주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48년 만의 황금사자기 제패 감격, 축하연·격려금 ‘세레’로 이어져 “‘우승 갈증’ 씻고 자긍심 고취 ‘쾌거’ 지속하자”



총동창회가 지난 6월 7일 개최한 경남고 야구부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연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각 열었다.

야구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오전 유 회장 사무실(재송동 스타자동차 회사 소재)에서 야구부 코칭스태프에게 특별격려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재경동창회에서 하창우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경남고를 방문, 야구부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구 동문은 지난 6월 24일 오후 경남고 교장실에서 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각각에게 금일봉을 전했다. 이 자리서 구 동문은 선수단 회식비를 따로 챙기며 격려했다.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를 비롯한 동문 단체나 개인 등의 야구부에 대한 축하와 성원에 야구부 선수단은 사기가 충천해 있다. 전 감독은 “선수들이 선배 동문들의 격려에 크게 고무돼 있다. ‘자랑스러운 경남고’ 선수라는 자긍심이 부풀었고, 자신감이 대단하다.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동문사회에서는 “모교 야구부의 우승 낭보가 동문들에게는 큰 자랑이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쾌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동문간 결속과 단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남고 야구부 선수 및 코칭스태프 격려 줄이어 총동창회·야구후원회 등 단합 기회로 승화 기대

48년 만의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제패, 12년 만의 전국대회 패권은 ‘우승 갈증’에 애타던 6만여 동문에게 한여름 소나기 같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쾌거(快擧)’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임을 실감케 했다. 지난 5월 30일 저녁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고 야구부의 ‘신화와 같은 위업’이 안겨준 감격이 식을 줄 모른다.<관련기사 2, 3면>

우승의 감격에 전율한 지 2개월여의 시간동안 황금사자기 우승 관련 축하연과 우승축하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연이은 자긍심 ‘세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고 야구부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은 꿈을 꾸는 듯한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 동문들의 기쁨도 말할 나위 없었다. 그만큼 우승에 대한 ‘갈증’이 깊었다는 의미이다.

축하연은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가 각각 주최한 것과 44회 동기가 마련한 것 3가지가 있었다. 축하연에서 우승축하금 전달식도 있었다.

총동창회는 우승 8일 만인 지난 6월 7일 오후 연산동 부산시티호텔에서 야구부 선수 53명과 전광열(44회) 감독 등 코칭스태프 전원,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우승축하연

을 열었다. 이날 행사 경비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사비로 부담했다. 총동창회는 출전지원금 200만원 선지급에 이어 이날 우승 격려금 200만원을 전 감독에게 전했다.

야구후원회는 지난 7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시네드쉐프에서 우승 축하연을 열었다. 야구부 선수 전원과 코칭스태프, 동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비 일체를 유재진(22

회·스타자동차 회장) 야구후원회 회장이 찬조했다.

44회 동기회는 지난 6월 25일 오후 중앙동 타워호텔 옆 ‘참치사랑’(43회 류법권 동문 운영)에서 야구부 코칭스태프를 초청하여 축하연을 가졌다. 44회 동기회는 이날 코칭스태프에 황금 우승기념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부남(37회) 동문은 150만원의 격려금을 전했다.

별도의 우승축하금 전달식으로 야구후원회와 재경동창회, 그리고 구본능(21회·희성그룹 회장) 동문 개인 등이 각

‘차기 총동창회장 누가 되나’ 초미의 관심사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누가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후임자로 선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총동창회장 후보인 수석부회장 자리가 올해 초부터 공석이었고,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총동창회장은 그동안 후임자 물색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수석부회장직을 맡아오던 김현태(30회) 동문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이후 후배기수인 30회와 31회 동문 중 유력인물을 개별적으로 타진해보고, 동기회 차원으

로도 인물 추천을 의뢰했지만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자 32회와 33회의 유력 동문 몇 명에게도 의사를 물었으나, 기수를 건너뛰는 게 부담스럽다며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급기야 총동창회장 기수가 33회 이후로 넘어가서는 더욱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기수를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타 교 동창회의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고, 동문회 조직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안은 진척되기 직전 후배기수의 연령대를 고려해 없었던 일이 되었다.

김 총동창회장은 30회와 31회는 동기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후보자 배출 불가함을 통보한 상태라 기수 건너뛰기 부담이 없어진 32, 33회 기수 중 유력인물과 접촉,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2, 33회에는 총동창회 각종 모임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등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동문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조만간 총동창회장 후보자가 확정되면 지명 절차가 진행된다.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후보자를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내년 정기총회 시 승인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황금사자기 우승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지난 7월 1일 시네드쉐프에서 경남고 야구부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연을 열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왕자의 만찬' 경남고 야구부, 사기충천

고급 레스토랑서 우승 축하연...자긍심 "쑥쑥" 유재진 야구후원회 회장, 사비로 개최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단체로 보다 격조(格調) 있는 분위기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해보았다. 선수들의 이런 경험이 젊은 날의 좋은 추억이 되고,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유재진(22회·스타자동차 회장) 야구후원회 회장이 지난 7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시네드쉐프에서 '경남고 야구부 제76회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연'을 개최하면서 한 말이다. 이날 축하연 만찬 경비는 행사 아이디어를 낸 유 회장이 사비로 부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승 주역인 야구부 선수 전원과 코칭스태프, 야구후원회 및 총동창회 인사 등 모두 71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경야회가 제작한 우승 동영상 시청이 있었다. 청담고와의 결승전 하이라이트, 동문 응원전 등을 담은 내용이다.

유 야구후원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으로 거둔 황금사자기 우승이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선수와 감독, 코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유 회장은 야구부 선수들에게 "우리는 '경남고'라는 바꿀 수 없는 학적으로 끈끈한 '운명적인 연'을 맺었다"면서 선배로서 2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 회장은 "첫째 야구 선수라면 누구든 갖는 메이저리거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기량을 닦아 달라. 둘째 야구 선수 이전에 학생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탁의 말로 효도를 주문했다.

이어서 우승기, 우승트로피, 우승컵 전달식과 야구후원회서 마련한 우승기념 모자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씌워주기, 응원이 1번 부르기, 그리고 만찬

이 진행됐다.

이 자리서 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 조용철(38회) * 실무위원장의 건배사와 야구부 주장 김범석 선수의 감사 답례가 있었다.

이날 행사 진행 사회는 배우인 신승환(51회) 동문이 재능기부로 맡았다. 야구후원회는 차량, 경야회는 동영상 제작 후원을 담당했다.

◇참석자=△경남중고 야구후원회-유



유재진 야구후원회 회장이 황금사자기 우승기를 흔들고 있다.

재진(22회) 회장, 박종찬 수석부회장, 김진철(이상 25회) 부회장, 조용철(38회) 실무위원장, 김동주(51회) 사무국장, 송승준(53회) 실무위원 △총동창회 및 동문-박종기(28회) 80년사 편집위원,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신승환(사회사·배우) 정유석(이상 51회) K-청마회 수석부회장, 허근영(52회·오각스포츠 대표) △경남고-야구부 전원, 전광열(44회) 감독, 박현승(45회) 정수찬(46회) 류은재(56회) 정규창(62회) 코치.

'자랑스러운 동기' 전 감독에 축하연



44회 동기생들이 지난 6월 25일 중앙동 '참치사랑'에서 황금사자기 우승 경남고 야구부 코칭스태프를 초청, 축하연을 가졌다.

황금 우승기념패.

44회 동기생들, 코칭스태프에 황금 기념패 "동기간 변치 않고 오래 쌓인 우정과 성원이 익어서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

경남고 야구부 전광열 감독과 44회 동기생들 간의 이야기이다. 전 감독은 48년 만의 황금사자기 우승, 12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 주역이다. 44회 동기생은 이번 패거가 전 감독이 2014년 감독부임 이후 거둔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 더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전 감독을 코치 시절부터 성원해온 동기생들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44회 동기생들은 지난 6월 25일 오후 중앙동 타워호텔 옆 '참치사랑'(43회 류법권 동문 운영)에서 이 감격과 기쁨을 자축하고자 축하연을 열었다. 지난 5월 11일 야구부 선수 전원 등을 대한통운 빌딩 뷔페로 초대해 출정식을 가지며 기(氣)를 듬뿍 불어넣어준 일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으니 보람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전 감독을 비롯, 정수찬 수석코치(46회), 박현승(45회) 타격내야수 코치, 정규창(62회) 보조코치가 참석했다. 내빈으로 허부남(37회), 조중완(54회)

동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44회 동기생은 18명이 참석했다.

44회 동기생은 전 감독 등 코칭스태프에게 황금 우승기념패를, 정보조코치에게는 격려금(안병규 동문 찬조)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허부남 동문은 코칭스태프에 150만원의 격려금을 전했다. 44회는 이날 '양빠'(양고기집)에서 밤 늦게까지 뒤풀이를 가졌다.

◇찬조 내역=허부남(37회) 코칭스태프 격려금 150만원, 류법권(43회) 회식비 20만원, 탁정환(동기회장) 회식비 상당 금액, 안병규(전 동기회장) 보조코치 격려금 및 뒤풀이 경비, 윤상훈(이상 44회) 수석부회장 기념품(보냉보온 방수백) 30개.

◇44회 참석자(무순·18명)=탁정환 안병규 윤상훈 강경호 문형준 정중윤 한수성 임정훈 조진현 석상봉 권상근 우도균 김부건 신진수 조상화 김정진 정희정 배봉건.

김대욱 총동창회장, LA동창회 방문 격려

현지 야유회에 참석,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품 등 전달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지난 6월 25일 미국 LA지역동창회가 야유회를 갖던 오렌지 카운티 Ralph B Clark Regional Park를 직접 방문하고 동문들을 격려하고 현지 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품을 참석 동문들에게 전달,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 6월 19일~7월 3일 개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한편 LA동창회는 이날 꾸민 선물과 기념품을 준비, 추첨을 통하여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날 특별주문한 도시락과 LA갈비를 현장에서 바베큐하며 즐거운 점심을 하였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지난 6월 25일 LA지역동창회 야유회에 참석, 동문들을 격려했다.

황금사자기 우승

자부심 만발한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연

선수단·코칭스태프,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107명 참석 대성황



총동창회 주최 경남고 야구부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연에 참석한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김대욱 총동창회장, 사비로 자리 마련

“승리의 용사들의 옛된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충만했고, 가슴은 투지로 불타는 듯했다. 명문의 전통을 체득한 몸가짐은 늠름하고 자랑스러워 보였다.”

지난 6월 7일 오후 연산동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남고 제76회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연’에 초청된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의 모습이다. 48년 만의 황금사자기 우승이자, 12년 만의 전국야구대회 우승이란 쾌거를 이뤄낸 주인공들이다. 연회장은 감격과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했다.

이날 축하연은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거의 반세기 만에 우승의 승리가를 부른 경남고 야구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명문 부흥’을 함께 다짐하자고(거액의) 사비를 들여 마련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 53명과 코칭스태프-감독 전광열(44회), 코치 박현승(45회·타격내야), 정수찬(46회·수석), 류은재(56회·외야) 정규찬(62회·보조)를 비롯, 백영선 교장, 조민형 교감, 김문현 야구부장 등 교직원 8명, 학부모 12명, 그리고 동문 다수 등 모두 107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우승의 의미를 “첫째 경남고의 이름을 전국에 떨쳐 ‘전통 명문’ 경남고를 각인시켰다. 둘째 야구후원회가 더욱 잘 될 것이다. 셋째 전광열 감독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선수들의 기본기 충실 훈련 지도가 빛을 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총동창회장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모교에,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모교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순수한 열정으로 모교에 뭘 해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노력하자”면서 장학금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모교사랑기금 기부 참여를 호소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 우승 격려금 200만원을 전 감독에게 전달했다. 대회 출전지원금 200만원은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날 야구부 선수단은 우승기와 우승 트로피, 우승컵을 김 총동창회장, 박종찬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 옥동훈(이상 25회) 총동창회관장에게 각각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연출, 동문 선배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 자리서 개인시상 수상자 8명이 연단 앞으로 나와 소감을 발표했다. 공로

상 수상 백 교장은 “학생들의 땀방울과 감독의 원칙에 입각한 지도 능력, 총동창회의 끊임없는 지원, 학부모의 열망이 뭉쳐져서 오늘의 영광을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전 감독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백 교장은 대회 후 청담고 교장에게 위로전화를 했다면서 “청담고는 동화처럼 등장한 팀이었는데, 경남고는 48년 만에 신화를 이룩한 팀으로 큰 감동이였다”는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도상 수상 김문현 야구부장은 “올해 처음 야구부장을 맡자마자 우승해 기쁘다. 학생들과 감독 및 지도자, 동문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감독상 수상 전 감독은 “우리 아이들 정말 대견스럽다. 큰 부상 없이 경기 잘 치러낸 것만도 대단한데 우승 결과까지 만들어냈다. 경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확실히 플레이 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동문, 교직원, 학부모 등의 열렬한 응원이 있었기에 우승이 가능했다. 남은 대회도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 잘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선수상 수상 나윤호 선수는 “누구나 꿈꾸는 MVP를 수상해 영광이다. 남은 대회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투수상 수상 박윤성 선

수는 “수고해준 후배,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 남은 대회도 잘하겠다”고 말했다. 수훈상 수상 강민우 선수는 “결승전에 응원해 준 선배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다타점상 수상 김정민 선수는 “말로만 하던 우승을 해 너무 기분 좋다. 열심히 노력한 보답이라 생각한다. 남은 대회도 열심히 해 좋은 성적 거두겠다”고 말했다. 최다안타상 수상 조세익 선수는 “개인상보다 팀이 우승해 좋다. 팀을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박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확실히 갖자. (경남중고는) 학업과 야구 두 축으로 전통을 이어왔다. 학업은 용마장학회, 야구는 야구후원회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후원금 많이 모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 상복 많은 김대욱 회장 시대에 학교에 좋은 소식이 몰려들고 있다. 동문들의 기운이 합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동창회는 영원히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 김경곤(38회) 동문의 선창으로 ‘후라 경고!’와 응원가1, 그리고 교가 제창으로 축하연 행사를 마무리하고 만찬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덕형리그는 우승 축하금 대신, 경남고에 내야 방수포(300만원 상당) 지원을 발표했다. SSG배 고교야구대회 준비상황 소개 순서에서 팀 코치로 활약 중인 송승준(53회) 전 롯데 투수가 박수를 받았다.

◇동문 참석자(기수순·직책생략)=노상우(24회) 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박상호(26회) 김대욱 박봉구 이문열 현응열(이상 29회) 이종휘(32회) 윤상현 이윤조(이상 33회) 이성엽 손병걸(이상 34회) 박진용 정윤희(이상 36회) 김경곤 김태호(이상 38회) 박근태 윤원욱(이상 39회) 이양결(41회) 손창오(45회) 정신(47회) 김동주(51회) 김민철 김현진 허근영(이상 52회) 송승준 이상훈(이상 53회) 유영재(60회)



제76회 황금사자기 야구대회에서 수상한 경남고 선수단. 사진 왼쪽부터 김정민(최다타점상·7점), 강민우(수훈상), 박윤성(우수투수상), 나윤호(최우수선수상), 조세익(최다안타상·11개) 선수, 전광열 감독(감독상), 김문현 야구부장(지도상), 백영선 교장(공로상).



경남고 야구부가 총동창회에 황금사자기 우승기와 트로피, 우승컵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대욱 총동창회장, 김범석 선수, 박종찬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 김정민 선수, 옥동훈 동창회관장, 권태인 선수.

황금사자기 우승

경남고 야구부 코칭스태프진 치하 야구후원회, 1천만원 격려금 전달

경남중고 야구후원회(회장 유재진·22회)는 지난 6월 14일 오전 재송동 스타자동차 회사(유 회장 사무실)에서 48년 만에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우승 쾌거를 거둔 경남고 야구부 전광열(44회)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특별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격려금은 1천만원으로, 코칭스태프에 분배토록하고 일정액은 선수들의 용품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유 회장은 “야구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신화’와 같은 경사를 이룩한 코칭스태프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야구후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여 야구부를 확실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신세계 백화점 5층 시네드쉐프에서 유 회장의 초청 오찬을 즐기며 환담을 나누었다. <참석자=유재진(22회) 경남중고 야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경남고 야구부 코칭스태프에 특별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 편집위원>

구후원회 회장, 조용철(38회) * 실무위원장,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전광열(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 박현승(45회) * 코치, 정수찬(46회) * , 김동주(51회) 야구후원회 사무국장, 류은재(56회) 경남고 야구부 코치.

재경동창회도 야구부 후원금 500만원 전달

재경동창회는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경남고 야구부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하창우(27회) 재경동창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경남고를 방문, 백영선 교장과 전광열(44회) 감독에게 후원금을 건넸다.

이번 후원에 허훈(13회) 최상인(20회) 이민부(27회) 황치중(28회) 김승환(40회) 동문과 김리호 스포츠공화국 대표(67회 정연욱 동문 근무처) 등이 참여했으며, 8~50회 25개 기수가 동참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결승전 종료 직후



하창우(오른쪽) 재경동창회장이 야구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재경동창회와 하 회장은 각각 경남고 야구부에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야구후원회는 경남고에 5천300여만원대의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야구후원회, 전반기 지원금 전달식

경남중고 야구후원회(회장 유재진·22회)는 지난 6월 17일 오후 경남고 교장실에서 2022년도 전반기 야구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 조용철(38회) *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 등이 참석, 백영선 경남고 교장과 전광열(44회) 감독에게 야구용품(야구배트, 스파이크, 바람막이 등) 경비와 장학금(경남고 기숙사 사감비 활용) 등 5,324만원을 전달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야구후원회가 설립되자 황금사자기 야구대회에서 우승해 모양새가 좋다”면서 이번 우승 기록은 모교 80년사에도 수록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백 교장은 “재학생들의

자긍심이 크게 향상된 것 같다”면서 황금사자기 결승전에 응원 온 재학생 7명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이날 행사 전 박 수석부회장은 훈련 중인 야구부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경남중에는 야구용품(반팔타·반바지, 하드볼 6박스) 1,028만원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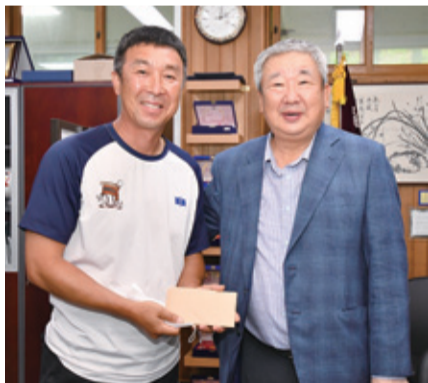
<참석자=박종찬(25회)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 김중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조용철(38회)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실무위원장,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정신(47회)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실무위원, 김동주(51회) * 사무국장, 송승준(53회) * 실무위원.

구 동문은 경남고 야구부 기숙사 ‘남애관’을 건립해 기증했으며, 나이트 시설 설치, 세탁기 기증 등 야구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경남고 백영선 교장, 조민

형 교감, 총동창회 현응열 사무총장, 김중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그리고 하범종(41회·(주)LG 사장/CFO/경영지원부문장) 동문이 참석했다.

구본능(21회) 회장, 경남고 야구부 격려 코칭스태프에 금일봉, 선수단 회식비 전달



구본능(오른쪽) 동문이 전광열 감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모교 야구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구본능(21회·희성그룹 회장) 동문이 지난 6

월 24일 오후 경남고 교장실을 방문, 제 76회 황금사자기 대회 우승을 이끈 전광열(44회)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각각에게 금일봉을 전했다. 구 동문은 코칭스태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 감독에게 100만원, 코치 4명에게 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 구 동문은 선수단 회식비를 따로 챙겨 야구부 주장 김범석 군에게 전했다.

이 자리서 구 동문은 선수들의 인성 교육을 당부했다. 또 야구후원회와 관련, ‘프로야구선수 1히트, 1만원 모교 기부’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모교 80년사’ 학교편, 10월 말경 발간 경남중·경남고편 1권으로 묶고, 더 다듬기로

‘경남중·고등학교 80년사’ 학교사편 완성본 발간이 오는 10월 말경으로 미뤄졌다. 지난 4월 30일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가제본으로 봉정식을 가진데 이어 완성본을 6월말 발간하기로 했던 편찬계획이 수정되었다.

총동창회 모교사 편집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오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학

교사편 발간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경남중편과 경남고편 2권의 학교사를 한 책으로 묶기로 하고, 내용 보강작업에 들어갔다. 발간 시점을 당기는 것보다 책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80년 만에 맺는 결실인 만큼 성공작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 7월 한 달은 편집위원들이 가제본으로 내

용을 다듬고, 편집 수정을 하기로 했다. 이후 편집이 마무리된 가제본을 전문교열자에게 맡겨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각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교열작업이 끝나면 편집위원들이 다시 책 내용을 점검한다. 오는 10월 중순경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10월말 인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열작업이 빨리 끝나면 발간 일정은 더 당겨질 예정이다.

한편 재경동창회 모교사 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동창회사편은 오는 12월 말경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회 동기회, '뜨거운 환영' 속 창립총회

20명 회원 확보 우정 어린 선배 축하 선행

장재환 초대회장 "서로가 마중물 되어 발전하자"

경남중고 총동창회에 새로운 '막내 기수'가 들어왔다. 56회 동기회가 지난 6월 3일(금)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기수의 이름을 걸고 동창회 '무대'에 올랐다.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참여 의식이었다.

이날 56회 참석자는 20명이었다. 예전 사례에 비교해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인원이다.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참가자 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의미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기전달식으로 시작했다. 이날 총동창회, 경미회, 멘토기수인 46회 동기회, 50회부터 55회에 이르는 '직속선배', 그리고 후배 기수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총동창회서 주문제작한 기를 장재환 56회 초대 동기기장에게 전달했다. 장회장은 힘차게 기를 흔들며 56회의 창립을 선언했다.

이어 참석 선배 7명이 연단으로 나와 56회 참석자들에게 모교배지 달아주기 의식을 가졌다. 배지 달아주는 이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양새이다.

장회장이 감격에 찬 인사말을 했다. "졸업 후 20년 세월이 흘러 동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전통을 이어왔다. 개교 80주년, 황금사자기 48년 만의 우승 시점에 56회 초대회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기들과의 만남은 마치 예전 그때로 돌아간 것

처럼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끈끈한 동기로 만들겠다. 서로가 서로의 마중물이 되어 발전하며, 누군가의 로망이 되는 동기로 성장하겠다. 앞으로 언제나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56회 동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축하 위임을 받은 박종기(28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은 "퇴직 후 총동창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후배들을 많이 만나니 기를 받아 젊어지는 것 같다. 비수익단체인 총동창회는 회원들에게 소속감, 긍지, 명예, 자부심을 준다. 20명의 창립멤버를 환영한다"면서 "사회에서도 도전하고 열정을 쏟아 성공하여 동창회를 위해 공헌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은 "경미회의 막내 기수로 곧 56회가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동창회를 비롯, 여러 선배 동기회와 단체에서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우미옥 식당 축하연에서 정재우(50회) K-청마회 회장이 50만원을 희사했다. 2차 자리 경비는 55회 동문들이, 3차 자리 경비는 전민기(55회) 동문이 찬조했다.

이번 56회 동기회의 창립총회는 연년(年年)이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경남중고인(人)의 맥(脈)과 전통, 층층(層層)이 쌓이는 인적 자산과 동문애를 읽을



56회 동기회가 지난 6월 3일(금)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56회 창립총회에서 선배들이 56회 동기생들에게 모교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수 있게 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막내'의 창립행사와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선배들의 격려와 축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이번 56회 창립총회 행사에도 많은 동문선배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다.

총동창회 밴드를 통한 활발한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 경미회와 K-청마회 등 산하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돈독한 유대감과 끈끈한 우정 등 긍정적 에너지가 동문사회를 아우르고 있다. 개교 100주년을 향해 달리는 경남중고인들. 이들이 펼칠 역사가 기대된다.

◇참석자=박종기(28회) 총동창회 자문위원,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박동식 경미회 회장, 문지성(이상 42회) 부회장, 최원석 동기기장, 김백권, 서승진, 이재광(이상 46회), 정재우(50회) K-청마회장, 최우영 동기기장, 정유석(이상 51회) K-청마회 수석부회장, 김

지운(전)동기기장, 한중현(이상 52회) 부회장, 김권우 동기기장, 우재준(이상 53회) 부회장, 조중완 동기기장, 고지현(이상 54회) 부회장, 장지훈 동기기장, 최유성 부회장, 박기홍, 이동주, 이육한 사무국장, 이종원, 전민기, 이영훈, 허준(이상 55회), 박주환(57회), 김성수, 김명준(이상 59회), 전명재(67회).

◇찬조 내역(직책생략)=박종찬(25회) 50만원, 박종기(28회) 20만원, 김대욱(29회) 50만원, 허부남(37회) 30만원, 최영준(41회) 20만원, 박동식(42회) 20만원, 46회(멘토기수) 100만원, 50회 동기기회 20만원, 정재우(50회) 30만원+1차 식대 50만원 지원, 정유석(51회) 30만원, 52회 동기기회 10만원, 김민철(52회) 30만원, 53회 동기기회 30만원, 54회 동기기회 30만원, 55회 동기기회 30만원, 이동주(55회) 30만원, 경미회 30만원, 덕경회 30만원, K-청마회 5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용마장학회 간담회, 동창회관 공실 대책 등 논의

(재)용마장학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사 11명 중 4명과 감사 1명, 간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이병찬(23회) 이사장, 옥동훈(25회·동창회관장), 김현태(30회), 임태영(40회) 이사, 서민석(30회) 감사, 현응열(29회) 간사 등이다.

이날 2022년 상반기 진행사업보고에서 모교 장학금 지급은 총 3천125만원(경남고 1천290만원, 경남중 1천835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중 컴퓨터 블렌디드 구축(15개 교실) 사업비 1천345만원이 포함돼 있다. 또 임대수익 4천439만원 중 3천만원은 장학회 수익 전입금으로 전환했다.

장학회 보통재산 수지현황은 잔액기준 보통예금 9천376만원, 정기예금 8억5천만원으로 보고됐다. 임대수지현황은 장학회 수익 전환금 3천만원을 공제한 잔액기준 보통예금 1천83만원, 정기예금 2억5천만원이다.



용마장학회 간담회가 지난 6월 29일 총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동창회관 2층 당구장의 효과적인 활용, 4층 공실 임대 방안 등이 토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서 다음 이사회 때까지 이사 각자가 좋은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사회 개최 정

족수가 미달되자 임시방편으로 열렸다. 참석 의사 이사는 4명뿐이고, 의결 사항이 없어 불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보니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해 간담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일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과거에도 장학회 이사회 개최 시 참석자가 적어 불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회의를 겨우 진행해오기가 다반사였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이사 정원을 늘리되 적극적으로 활동 가능한 동문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올해 봄에 있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좌초되고 말았다.

제4회 용마당구대회 - 개인전



지난 7월 23일 어데고당구클럽에서 열린 제4회 용마당구대회(개인전) 참석자들 모습. 오른쪽 하단 사진은 노상우 용마당구회장(오른쪽)이 김학주 우승자에게 시상하는 장면.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김학주(24회) 동문 3연패 ‘당구 패왕(霸王)’ 등극

2년 7개월 만의 단체행사 성료...44명 선수 참가

경남중고 당구인들의 축제인 ‘용마당구대회-개인전’이 지난 7월 23일(토) 자갈치시장 인근 어데고당구클럽에서 열렸다. 올해로 4번째 대회이다. 지난 2019년 11월 30일 제7회 용마당구대회-단체전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치른 단체 행사였다. 코로나19의 상처가 깊었다.

이번 대회는 선착순 참가신청이 대회 개최 공지 불과 며칠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만큼 기대가 컸다는 의미이다. 이날 참가자는 대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44명으로 제한했다. 23회부터 56

회까지 당구애호가 동문들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학주(24회) 동문의 3연패 달성 여부였다. 개인전 2연패 달성으로 맞상대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그 사이 신예의 출현이나 기량 향상에 성공한 동문이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김 동문의 ‘아성(牙城)’을 넘지 못했다. 이미 한 경지에 이른 김 동문은 거침 없이 결승에 진출하여 상대 이정렬(43회) 동문을 11점 차이로 따돌리면서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3위는 문치호(34회), 4위는



제4회 용마당구대회(개인전) 준우승자 이정렬 동문(사진 왼쪽).

이학수(36회) 동문이다. 패자전 우승은 김한교(36회), 준우승은 백승현(50회) 동문이 차지했다. 하이런상은 이상필(43회) 동문으로 8점을 기록했다.

이날 대회는 오전 8시 30분 참가선수 집합 및 대진표 추첨, 개회식, 경기 진

행 순으로 펼쳐졌다. 대진표 추첨이 워낙 이른 시간이어서 거리가 먼 참가자들은 애를 먹었다고 한다. 김해지역동창회에서 후배들로부터 ‘큰형님’으로 존경받는 이상운(23회) 동문은 새벽같이 달려왔으며 ‘당구 열정’을 과시하기도

도. 김옥권(25회) 대회 운영이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대회장인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노 회장은 “선수와 여러 동문들을 만나 반갑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당구의 매력에 빠져보자. 가족스포츠로 발전한 당구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교류하면서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한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용마당구대회의 재개를 축하하고, 용마당구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하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조광제(28회) 경기운영위원장의 경기규칙 설명에 이어 오전 9시 40분 열전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장장 8시간의 ‘대회전(大會戰)’이 전개됐다. 오후 5시 30분 우승자가 가려졌다. 성적 발표 후 시상식, 회장 폐회사, 경품추첨, 교가제창 순으로 마무리됐다.

용마당구회는 오는 11월 제8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기 쟁탈 당구대회-단체전을 갖는다.

◇찬조 내역=노상우(24회) 회장 100만원, 장세훈(25회) 수석부회장 50만원, 총동창회 격려금 30만원, 26회 당구회 20만원, 28회 당구회 20만원, 손병걸(34회) 10만원.



용마당구대회 개인전 3연패를 달성한 김학주 동문이 ‘달관’한 듯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구는 ‘매너 게임’, 집중력이 승부 좌우”

하루 3시간 연습, 많이 걸어...치매 예방·변비 해소 효과

제4회 용마당구대회-개인전 우승 김학주(24회) 동문

“당구를 잘 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조용히 자기 것만 쳐야 한다. 그래서 당구를 ‘매너 게임’이라고 한다. 말 많으면 안 되고, 특히 야유성 발언은 금물이다.”

지난 7월 23일 자갈치시장 인근 어데고당구클럽에서 열린 제4회 용마당구대회-개인전 우승자이자, 이 대회 3연

패의 주인공 김학주(24회) 동문의 말이다.

대회 3연패의 소감에 대해 김 동문은 “그냥 운동이라 생각하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당구는 시합 운이 따라야 한다. 프로선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동문 자신만의 고유한 테크닉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구 경력 50년, 반세기이다. 굳이 말한다면, 부드럽게 강약을 조절하는 나만의 스트로크가 있다. 이는 경륜에서 나온 기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4연패에 도전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김 동문은 “내년 가서 생각해 보자.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동기들이 참가를 신청하니 따라 갈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당구실력을 ‘높은 클래

스’라면서 오로지 취미생활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현재 지인의 당구장(중앙동 플라틴당구클럽)에서 주3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김 동문은 한때 당구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당구장에 손님이 없으면 개인연습을 갖는다. 대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고 있다. 스포츠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량을 못 찾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동문은 당구의 장점을 설명했다. “취미생활로 당구를 하면 가격도 싸고, 몸만 오면 된다. 무엇보다 운동이 된다는 점이다. 많이 걷게 되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치매 예방과 변비 해소의 효과가 있다”면서 가족단위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지구 동창회



강서지구동창회 창립 3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강서지구 창립 3주년 자축...“결속력 높여 조직 활성화”

강서지구동창회는 지난 7월 6일 오후 명지오션시티 내 G타워 10층 쿠우쿠우뷔페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5회 진도영 동문에서부터 66회 김덕형 동문까지 61년의 간극을 명부상 회원 83명의 40%에 육박하는 동문들로 채웠다. 일정과 장소 선정이 여의치 않아 참석인원이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제1 지구동창회’라는 명성에는 손색없는 뜨거운 행사였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 중순 한마음체육대회를 치른 이후라 찬조를 자제, 회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1부 행사에서 김종규(31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립 이후 급속성장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안정화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며 “앞으로 갈 길은 탄탄대로”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회장은 “선배가 존경받고, 후배가 존중받는 동문회로 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날 최고참 선배인 진도영(5회) 동문은 축사에서 “상기중, 임성업 동기와 함께 동문 후배들로부터 섬김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 올해 94세의 나이에 66회 동문 후배와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눠 기쁘다”면서 동문 가정의 만사형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찬(41회) 신입 강서구청장은 “강서지구 발전을 위해 조그만 힘을 보태겠다. 동문과 함께 ‘위대한 강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원 활동상(賞) 시상식이 있었다.

최우수활동상 최주홍(31회), 우수활동상 구민수(50회) 동문이 수상했다. 우재준(53회) 동문이 체육대회 공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각 5만원 상품권 지급.

이날 강서지구는 김백권(46회) 동문을 청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강서지구 50대 기수 회원이 다소 많은 점을 고려, 이들을 잘 결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병훈(32회) 수석부회장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축시로 낭송했다.

2부 행사에서는 막내 기수부터 회원 각자가 무대로 나와 ‘나도 한마디!’ 시

간을 가졌다. 자기소개, 직업소개(광고성 PR도 가능), 강서지구에 하고 싶은 말 등의 내용을 평가해 시상했다. 1등 김덕형(66회·10만원 한우세트), 2등 우재준(53회·5만원 한우세트), 3등 조광제(28회·”) 동문이다.

◇현금찬조=박종찬(25회) 20만원, 김택영(26회) 20만원, 백영호 20만원, 김상윤(이상 28회) 10만원, 김종규(31회) 20만원, 이병훈(32회) 10만원, 김재성(35회) 10만원, 정재형(38회) 10만원, 정병노(46회) 10만원, 신종국(49회) 10만원, 총동창회 30만원, 사하지구 20만원.

◇참석자(존칭생략)=△강서지구-진도영(5회) 이동석(25회) 김택영(26회) 백영호 조광제 예영일(이상 28회) 김종규 최주홍 심규열(이상 31회) 이병훈(32회) 김재성(35회) 이수관(38회) 김종승(40회) 김성준(44회) 이준호(45회) 이진행 김백권 정병노(이상 46회) 윤호재 신종국(이상 49회) 구민수(50회) 최우영 오건진 이재훈(이상 51회) 우재준 김현수(이상 53회) 류태용(54회) 최유성(55회) 장재환 이승민(이상 56회) 이동근 유승환(이상 58회) 김덕형(66회) △총동창회-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사하지구-허부남(37회) 차기 회장.



강서지구동창회 최고참 회원인 진도영(5회)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서지구동창회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신입 강서구청장 김형찬(41회)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장(老壯)’의 활기찬 어울림 “유쾌 발랄”

해운대지구, 즐거운 모임 행사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모임이 지난 6월 30일(목) 오후 해운대구 좌동 재래시장 내 양고기 전문음식점 ‘예담’(38회 김근홍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지난 4월말 모임에서 회원 등 60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데 이어 이날도 40명을 훌쩍 넘는 참석인원을 보여 모임의 건강성을 보였다.

특히 이날 10대 선배기수가 7명, 20대 기수 6명, 30대 기수 16명, 40대 기수 5명, 50기수 11명 등 45명의 동문이 한 공간 안에서 화기에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40여년 세월의 격차도 ‘학적(學籍)의 인연’에 녹아서 ‘노장(老壯)’의 아름

다운 조화로 승화되었다.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남중고 동문간 네트워크의 가치를 설명하고 “연말 송년회에는 200명쯤 모이는 큰 행사가 되게 하자”면서 “동문간 밀어주고 당겨주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곽두희(24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해운대지구는 선후배간 다양한 기수가 모였다. 이것이 동창회 구성의 근간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영원한 발전을 빌었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해운대지구는 활기차고 역동적”이라면서 타 지구와 선의의 경쟁 통해 함께 발전하길 희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기소개와 근황을 이야기하며 유쾌한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모임에서 10대 기수(오른쪽 테이블)와 50대 기수가 나란히 자리했다.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서병수(25회) 국회의원이 모처럼 참석, 동문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했다. 고(故) 남진현(19회) 초대 동창회관장의 딸 남지원(해운대구의회 의원) 씨가 명예회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56회는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12월 3일·목장원) 홍보를 위해 장재환 동기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찬조=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 20만원, 박진용(36회) 10만원, 박정민(38회) 10만원, 용건희 20만원

◇참석자=윤기갑 배대결(이상 13회) 김화옥(14회) 김길호 오태식 신정아 이건우(이상 17회) 곽두희(24회) 서병수 김태용(이상 25회) 이영희(28회) 현응열

김종명(이상 29회) 박태종 유희철 박상국(이상 33회) 박철웅 최해협(이상 34회) 김남수 허재영(이상 35회) 윤경준 오명재 장상욱 박진용 정윤희(이상 36회) 강금성 김태호(이상 38회) 윤원욱 이준영(이상 39회) 김용철(40회) 김성수(43회) 김형준 정영인 조현철(이상 44회) 허근영(52회) 이육한 송정환 정보영 안진영(이상 55회) 장재환 김경도 김선철 강지훈 박진완 류은재(이상 56회) *명예회원-남지원.

한편 해운대지구는 8월 정기모임을 제3회 요트 프라이빗 투어로 대체, 3회로 나눠 실시한다. 1차 8월 11일(30회까지 참가), 2차 8월 18일(31~37회), 3차 8월 25일(38회 이하)이다.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건배하고 있다.

중부산지구 '정모', 도약의 신호탄 쏘아

중부산지구동창회 정기모임이 지난 6월 13일(월) 오후 총동창회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열렸다. 참석자가 30명을 훌쩍 넘었다. 모임활동을 주춤케 한 코로나19 사태의 안타까웠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내면의 심리가 집회 장소로 향하게 한 듯했다. 그동안 모임 개최의 깊어진 절절함이 반가움을 배가시켰다.

이영학(26회) 중부산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뵈지 못했던 많은 선배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이번 모임을 통해 중부산지구가 더욱 활기차고 발전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총동창회관과 모교를 끼고 있는 중부산지구는 총동창회 산하 조직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총동창회 활동에 중부산지구와 지구 회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이 회장은 중부산지구의 발전을 위해 부회장단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박종기(28회) 총동창회 자문위원 겸 80년사 편집위원과 최영준(41회) 경미회 고문을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박 부회장은 이 자리서 "중부산지구 동창회의 모태는 지난 1986년에 출범한 광복회이다. 중부산지구가 36년이란 역사를 가진 지구동창회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중부산지구 집행부는 회원 단합과 결속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처음 중부산지구동창회에 참석한 전민기(55회) 동문은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중부산지구동창회 자리였다. 꾸준히 중부산지구에 힘 보태는 후배, 동기, 선배가 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참석자(직책생략)=임철호(24회) 서보민(25회) 이영학 이광태(이상 26회) 박종기 안풍 김용원(이상 28회) 현응열(29회) 정순길(30회) 류명석(31회) 박성철 장기호(이상 32회) 박철웅(34회) 김종오(36회) 노재완(38회) 안승진 윤원욱(이상 39회) 최영준 전삼록 성찬기



중부산지구동창회 정기모임이 지난 6월 13일 총동창회관 내 카페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중부산지구동창회 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개인근황을 소개하고 있다.

서상대 이양걸(이상 41회) 이영도(42회) 김영휘(43회) 김형준 정영인 이승철(이상 44회) 권우일 조창래(이상 45회) 육한수(46회) 채현철(50회) 양현진

(54회) 이복한 전민기(이상 55회) ◇찬조 내역=총동창회 30만원, 박종기(28회) 20만원, 박이현(38회) 30만원, 최영준(41회) 20만원, 용건회 10만원.



북부산지구동창회가 지난 6월 8일 정기총회를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북부산지구 정총, "새 출발 기운 받자"

북부산지구동창회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북부산지구는 지난 6월 8일 북구 덕천동 서영이네생고기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집행부는 2년여의 시간 공백을 어떻게 메워 나갈지 기대반 두려움반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참석자가 총동창회 인사를 포함하여 22명이었다. 북부산지구 회원은 9회 정삼동 동문부터 54회 고강인 동문까지 19명이 나왔다.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박창제(35회) 북부산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넘고 모이니 감개무량하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동안 집행부만

몇 차례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만간 전체 회원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한다. 북부산지구도 잘 헤나갈 것으로 믿는다. 총동창회장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배기수들이 총동창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동창회가 드디어 중흥의 기운을 받고 있다. 경남중고 동문들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모교 재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 회원들은 아래 기수부터 각자 인사말과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으로 최고참 9회 정삼동 동문이 "처음 참가했다. 반갑다"면서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문정수(12회·전 부산시장) 동문은 자신과 북구와의 인연에 대해 "38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말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며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북구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자주 찾아와 달라"고 말했다.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인 이종휘(32회) 동문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어 회원이다. 사상과 화명동 지역이 연합하

면, 북부산지구가 최고의 지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북부산지구 동문들이 총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정보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김철(33회) 동문이 금일봉을 건넸다.

◇참석자=△총동창회-김대욱 김종명(이상 29회), 윤원욱(39회) △북부산지구-정삼동(9회) 문정수(12회) 박소남(15회) 장기영(18회) 이종휘(32회) 김철(33회) 박창제 박동렬(이상 35회) 양태형(37회) 박태봉(38회) 김경곤(39회) 한수성 최현덕(이상 44회) 문용성(46회) 신종국 김형민(이상 49회) 안기범(50회) 이경원(52회) 고강인(54회).



북부산지구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문정수(12회·전 부산시장)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래·금정지구, 새 출발 강한 의지 표명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휴면(休眠)의 시간을 털고 새 출발의 기치를 들었다. 지난 7월 8일 오후 온천장 소재 음식점 '짜다한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기모임을 가졌다. 동래·금정지구 회원 22명에 내빈 16명이 참석했다. 내빈이 참석자의 42%이다. 총동창회를 비롯, 주위의 많은 동문들이 동래·금정지구를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날 회원 참석자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40대와 50대 기수가 각 1명뿐이다. 30대 기수 역시 고른 편은 아니다. 그동안 동래·금정지구가 정체돼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차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지구(地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

았다. 오늘 감격스럽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지구동창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동창회 모임은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가능한 자주 보고 회포를 풀고 서로 좋은 기(氣)를 얻도록 하자"면서 "총동창회에서는 지구 및 지역 동창회와 각종 직능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박종찬(25회) 고문(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은 "야구후원회가 출범하자 곧바로 경남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우승했다. 동문들의 성원이 모여져 좋은 결과를 이룬 것 같다. 내년에도 우승하도록 열의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각 기수별 참석자 소개에서 38회가 회원, 내빈 합쳐 모두 10명으로 최다참가 기수로 확인됐다. 김 총동창회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동래·금정지구동창회 정기모임 최다참석 기수를 격려했다.

장은 즉석에서 치하의 금일봉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 정용운 회장을 비롯, 모두 5명의 지구동창회장이 자리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구동창회 회장단 모임을 재개기로 하고 일정을 논의했다.

교가 제창으로 행사를 마치고, 인근 맥주집에서 '이야기 꽃' 뒤풀이를 가졌다.

◇참석자=△동래·금정지구 *집행부-회장 정용운(32회), 고문 이상화(25회), 부회장 이용길(32회), 사무국장 김종엽(39회), 홍보부장 김경곤(38회) *회원-한문진 최병석 김형국 김광기 이상현 기영수(이상 32회) 전영목(36회) 박정민 구동주 김현민 심재민 한민득 김태성 강금성(이상 38회) 이준영(39회) 강인호(42회) 우재준(53회) △총동창회-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고문, 박봉구(운

영위부회장,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지구동창회 및 직능단체-*부산진·연제지구 회장 이윤조(33회), 사무국장 김병기(39회), 홍보부장 백기현(39회) *해운대지구 회장 정윤희(36회), 사무국장 김태호(38회) *강서지구 사무국장 이수관(38회), 조직차장 구민수(50회) *남부산지구 회장 이종휘(32회), 재무차장 김석훈(50회) *청마회 사무국장 김권우(53회).

◇찬조 내역=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25회) 고문 20만원, 용건회 20만원, 청마회 10만원, 강서지구동창회 10만원, 남부산지구동창회 1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10만원,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10만원, 해운대지구동창회 10만원, 이상화(25회) 고문 20만원, 이문열(29회) 고문 50만원, 안중수(31회) 20만원, 고(故) 조준현(32회) 20만원 *집행부 찬조-정용운(32회) 회장 50만원, 이용길(32회) 부회장 20만원, 이훈(33회) 부회장 20만원, 박정민(38회) 전 사무국장 20만원, 김경곤(38회) 홍보부장 20만원, 김종엽(39회) 사무국장 20만원, 김현오(42회) 재무국장 20만원.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지난 7월 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정기모임을 가졌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부산진·연제지구, 새 출발 자세로 결속 다짐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가 지난 6월 15일(수) 오후 서면 아리한정식에서 열렸다. 2019년 말 송년회 이후 처음 갖는 정기모임이었다. 2019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송년회 시 조직이 정비되어 안착하는가 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2년 반의 '모임 공백' 시간을 지나 이날 21명의 회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었다. 총동창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 잊지 않고 참석해줘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준기(8회) 동문 등 불참 회원의 근황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의 모임 운영과 회원 확보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서면과 연산동이라는 부산의 두 도심권을 권역으로 둔 부산진·연제지구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만큼 모임이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

했다. 부산진·연제지구는 조만간 차기 집행부를 구성, 새 출발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총동창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선배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 가슴 뿌듯하다.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구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 자주 모여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깨끗한 마음, 사심 없이 모이는 동창회를 강조했다.

이 자리서 박종찬(25회) 고문은 "경남고 야구부의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동창회의 기(氣)가 상승하고 있다. 부산진·연제지구 참석자를 보면, 40, 50대 기수가 각 1명뿐이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고정회원을 확보해 연회비를 받는 모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박 고문은 금일봉과 뒤풀이 찾 집 경비를 찬조했다.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가 지난 6월 15일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부산진·연제지구 집행부 및 회원-이윤조 회장, 김법영(이상 33회) 고문, 박진용(36회) 부회장, 김병기 사무국장, 백기현(이상 39회) 홍보부장, 오수명 장기영(이상 18회) 노경호 이동근 주기훈 최웅남(이상 33회) 이동희 최상도(이상 36회) 김진영 정재호(이상 37회) 광동렬 박정민(이상 38회) 정진해 이상학(이상 39회) 김백권(46회) 김현운(58회) △총동창회-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 고문,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지구동창회-

동래·금정지구 정용운 이용길(이상 32회). ◇찬조 내역=총동창회 30만원, 오익희(21회) 10만원, 박종찬(25회) 20만원+2차 커피숍 경비,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만원, 이윤조(33회) 100만원, 박진용(36회) 30만원, 박인석(39회) 10만원.

지역·지구 동창회

지구동창회 회장단 회의 '부활'

라오스대사관 초청 '우정 방문'은 무산



경남중고 지구동창회 회장단 모임이 지난 7월 19일 2년 1개월 만에 열렸다.

경남중고 지구동창회 회장단 모임이 지난 7월 19일(화) 오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식당에서 열렸다. 2년 1개월여 만에 가진 행사이다. 코로나19로 그간 모임을 자제해왔던 지구동창회 회장단은 이날 모임을 계기로 분기단위로 모임을 열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구동창회 회장 6명과 총동창회 인사 3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존립의 중요 축이라 할 지구동창회

의 활성화를 위해 회장단의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모임 재개를 환영했다.

이날 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라오스대사관 초청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장단 방문 △지구동창회 모임 활성화 방안 등이다.

라오스대사관 초청 건은 방문단 구성 단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라오스 입국이 불투명해져 무산시키기로 했다.

지구동창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모임 안내 시 총동창회 사무국 문자 발송 협조 △총동창회서 동문 지구동창회 참여 독려 등이 협의됐다. 다음 지구동창회 회장단 모임은 동래·금정지구, 사하지구 순으로 주관기로 했다.

새 보금자리 마련...조출한 개소식

김해지역동창회, 2년여 만에 정기 월례회도

김해지역동창회는 부원동 팔각공원 앞 고앤백 빌딩 3층에 새 등지를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 오후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3번째 회관 개소식을 가진 김해지역동창회는 이날 조출한 기념행사를 갖고 동문 단합과 활성화를 다짐했다.

동문회관에는 라면 끓여 먹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간단한 요깃거리와 음료수를 비치해두었다. 특히 각종 유희 기구를 구비,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새 회관 이전에 김해지역동창회의 '좌장(座長)'격인 이상운(23회) 동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후배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참석자=이상운(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 박광수 박희규(이상 29회) 이광희 김동욱(이상 30회) 황성철(31회) 박원곤(32회) 김규선 장정재 박형출 김용진(이상 36회) 김기덕(37회) 송대성(43

회) 이상현(45회). 한편 김해동창회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내동 소재 음식점 '사랑도희집'에서 2년여 만에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연화도 트레킹 등으로 만남은 지속되었지만, 월례회 이름으로는 모처럼 갖는 행사였다. 전통적으로 우정이 깊은 김해지역동창회는 이날 행사 역시 진한 우정의 연회가 되었다.

박원곤(32회) 회장은 "회관 이전에 동문들의 정성을 모으자, 오늘 귀한 모임의 월례회를 갖게 되었다. 선후배간 돈독한 우정의 자리가 되게 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조영호(44회) 동문이 꼬치그릴 2세트(48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찬조했다. 박광수(29회), 김규선(36회) 동문이 당첨되었다.

◇찬조 내역=차의수(29회·고문) 10만원, 전준호(30회·교차로대표) 20만원, 김규선(36회·부회장) 10만원, 정재영



김해지역동창회가 지난 7월 8일 새 회관 개소식을 가졌다.

(38회) 10만원+보드카(30년산) 1병, 조영호(44회) 꼬치그릴 2세트(48만원 상당) ◇참석자(기수순)=이상운(23회) 최연삼(28회) 박광수 차의수(이상 29회) 박원곤 배종찬 양문성 최호영(이상 32회)

정희태(34회) 신동해 최민석(이상 35회) 김규선 김용진 박형출(이상 36회) 김기덕(37회) 송유석 정재영(이상 38회) 이남주(40회) 송대성(43회) 조영호(44회) 이상현(45회) 함상욱(49회) 신현식(51회) 이혜찬(69회).



2년여 만에 열린 김해지역동창회 정기월례회 모습.



경양회 정기 모임이 지난 7월 21일 열렸다.

경양회, 신임회장 배성호 동문 선임

지난 7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아림(중식당)에서 양산지역동창회(경양회) 2022년 첫 모임을 가졌다. 박경수(31회) 회장 후임에 배성호(35회) 동문이 선임되었다. 향후 홀수달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

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박경수(31회) 강주태(33회) 김성수 배성호(이상 35회) 구동주 이양배(이상 38회) 하순호(39회) 최병호(41회)

<동창회관 공실 긴급 임대>

동창회관의 사무실 일부가 공실이 되었습니다. 긴급히 동문 여러분께 협조를 구합니다. 동창회관의 임대수입은 모교에 장학금 및 야구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실호수	실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401호	7.8평	4,000,000	400,000	70,000
403호	3.9평	2,000,000	200,000	35,000
405호	3.9평	2,000,000	200,000	35,000
201호 (당구장내)	16평	5,000,000	500,000	70,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연락처 : 사무국(051-253-7788)

<개교 80주년 기념엠블럼 판매 알림>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역사적 의미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기념엠블럼(기념 우표)을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개교 80주년 기념식의 행사기념품으로 배포된 것입니다. 다수의 동문이 기념품 구매를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은 수량을 가격 3만원에 판매합니다.

*구입문의: 총동창회 사무국(051-253-7788), 사무국장(윤원욱·39회·010 8970 1656)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74-0536-01 / 경남중고총동창회 김대욱
*참고: 부산권 외 타 지역은 택배비 4,000원 별도

교정에 핀 꽃들에게 이름 불러주면,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5~6월

— 배움터 지킴이 정호균씨 촬영



산야에 핀 꽃을 지나치면서 무심코 보면 그저 예쁜 자연물이다. 자연의 조화를 칭송한다. 그러다 꽃 이름을 알면 눈길이 더 간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더 자세히, 더 오래' 보게 된다. 내태주 시인의 시 '꽃꽃'처럼 사랑하게 된다. 저 꽃에 이름을 지어준 이를 생각한다. 꽃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를 수 없는 숭고한 작업이다. 모교 교정에 핀 꽃들 하나하나에도 위대한 역사(役事)가 담겨 있다.



메꽃

메꽃과, 여러해살이덩굴식물

나팔꽃과 비슷한 꽃이 피는 메꽃의 뿌리를 '매'라고 부른다. 제사상에 놓인 밥을 '매'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옛날 구황작물로 뿌리를 식용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바닷가에서 자라며, 꽃잎 안쪽으로 5갈래의 흰색 줄이 선명하게 있는 것은 것메꽃이다. (2021.5.4. 촬영-국산관 왼쪽 언덕배기)



골무꽃

골풀과, 여러해살이풀

5~6월에 피는 이삭 모양의 자줏빛 꽃의 모양이 바느질 할 때 손에 끼는 골무와 비슷하다고 골무꽃이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고, 민간에서는 뿌리째 위장염·해열·폐렴 등의 약재로 쓴다. 흰꽃이 피는 것은 흰골무꽃이다. (2021.5.6. 촬영-본관 뒤편 체육관 진입로 아래)



약모밀

삼백초과, 여러해살이풀

앞모양이 메밀과 비슷하고 약으로 쓰는 약모밀은 식물 전체에서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어성초(魚腥草)라고도 한다. 뿌리가 달린 전초(全草)를 어성초(魚腥草)라 하며 약용하는데, 폐렴, 신경통, 동맥경화, 기관지염, 각종 부종, 임질·요로 감염증·기관지염 등에 효능이 있다. (2021.5.14. 촬영-과학관 입구 왼쪽 화단)



송엽국

반행초과, 여러해살이풀

원예품종인 송엽국은 소나무의 잎과 같은 잎이 달리는 국화라는 뜻이며, 흔히 속명인 '람프란서스'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흔했던 채송화를 닮은 잎은 솔잎처럼 선형이면서 두툼한 다육질이다. (2021.5.17. 촬영-교문 앞 공중전화 박스 오른쪽 언덕)



닭의장풀

닭의장풀과, 한해살이풀

꽃잎의 모양이 닭 벼슬을 닮았고, 닭장 옆에서도 잘 자란다고 닭의장풀이며, 흔히 달개비, 닭의밀싹개라고도 한다. 닭똥은 독해서 바로 닿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풀 전체를 말려서 황달, 간염, 감기, 소화, 해독에 약용하고, 파란색 염료로도 사용한다. (2021.5.24. 촬영-분리수거장 오른쪽 풀밭)



황금낫달맞이꽃

바늘꽃과, 두해살이풀

5월 말 아파트 화단이나 공터에 한창인 분홍낫달맞이꽃과 함께 달맞이꽃의 개량종이다. 낮에 노란색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황금낫달맞이꽃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돌담 틈에 핀 걸 보면 화훼용이지만 번식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2021.5.25. 촬영-정문 게시판 왼쪽 옆 신관 돌담 틈)



비비추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잎에서 거품이 나올 때까지 손으로 비벼서 먹는다. 비비추는 뿌리는 한약 재료로 쓰고, 봄에 돌아오는 연한 잎은 데쳐서 쌈으로 먹거나, 묵나물을 만든다. 예전에는 산나물로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관상용이나 조경 식물로 많이 재배한다. 6~8월에 피는 꽃은 연한 자주색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린다. (2021.6.7. 촬영-성철의 집 입구 گوش 아래)



원추리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근심을 잊게 하는 식물이라는 중국명 환초(萱草)에서 유래된 원추리는 넘나물이라고도 한다. 꽃은 황색으로 7~8월에 피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데, 계속 다른 꽃이 달린다. 주황색 꽃이 겹으로 피며 안쪽에 짙은 얼룩이 있는 것은 왕원추리, 홑꽃이 피면 황왕원추리로 구분하지만 그냥 원추리로 통할 것 같다. (2021.6.14. 촬영-과학관 입구 왼쪽 화단)



분홍낫달맞이꽃

바늘꽃과, 두해살이풀

6월 중순 아파트 화단이나 공터에 분홍낫달맞이꽃이 한창이다. 야생달맞이꽃과는 달리 낮에 꽃이 피고, 꽃 색깔이 분홍색이라 분홍낫달맞이꽃이다. 주로 정원에 화초로 많이 심고 가꾸지만 저절로 퍼져나가서 공원, 길가에 많이 피어 있다. (2021.6.14. 촬영-과학관 뒤편 철봉대 아래 배수로)



참반디

미나리과, 여러해살이풀

산의 나무그늘 밑 음지에서 자라는 참반디는 7월에 가지와 줄기 끝에서 두세 대의 짧은 꽃대가 자라나 여러 송이의 작은 꽃이 둥글게 뭉쳐 피는데, 꽃의 지름은 3mm안팎이고 빛깔은 희다. 이른 봄 어린순을 나물로 먹고, 뿌리는 이뇨, 거담, 해열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약재로 이용한다. (2021.6.15. 촬영-본관에서 체육관 가는 길 오른쪽 풀밭)



배풍등

가지과, 낙엽활엽덩굴성반초본

풍을 물리치는 덩굴성 식물인 배풍등은 6~9월에 흰색 꽃이 피며, 줄기와 가지에는 잔털이 밀생한다. 유독식물로 10월에 익는 열매는 독성이 있어 먹으면 안 된다. 잎과 줄기를 약으로 쓴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술을 담가 사용한다. 해열·이뇨·거풍 등에 효과가 있다. (2021.6.22. 촬영-운동장 남쪽 그물망 펜스 아래)



이삭여귀

마디풀과, 여러해살이풀

반그늘이고 습기가 많은 풀숲에서 잘 자라는 이삭여귀 꽃은 7~8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길이 20~40cm의 이삭꽃차례이며, 꽃이 드문드문 달리고, 붉은색이다. 이삭여귀는 털머위, 파리풀과 함께 본관 뒤편, 체육관 주변, 국산관 오른쪽 숲 등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가운데 하나이다. (2021.6.23. 촬영-본관에서 체육관 가는 길 왼편 숲)

시민주도형 하천살리기 운동의 '성공적 모델'

온천천

국가하천인 수영강에 직접 합류하는 지방하천은 임기천, 송정천, 철마천, 석대천 그리고 온천천(溫泉川)이 있다. 온천천은 온천장(溫泉場)의 온천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동래온천(東萊溫泉)의 온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온천천은 현재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정산에서 발원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거치면서 약 15.6km 길이로 흐르고 있다. 안락동의 수영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서 수영강과 합류한다(기점: 금정구 구서동 196-1번 지선, 종점: 동래구 안락동 수영강 합류점).

온천은 화산활동 또는 높은 지열의 영향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5℃이상의 자연수로 유해성분이 없는 것을 온천이라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우수한 온천 가운데 물의 온도가 55℃이고 알칼리성 식염천인 곳은 동래온천이 제일 유명하다.

부산시민들은 동래구의 법정동인 온천동(溫泉洞)보다 '온천장'이라 더 잘 부른다. 조선시대에 일본 사신단이 조선에 오면 조선 정부는 그 사신단을 한양까지 못 오게 하고 동래도호부에서 그냥 맞이하라고 했는데, 그곳이 온천이 있는 온천장의 동래다. 당시 동래 지역에는 여러 포구(浦口)와 진(鎭)들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부산포(釜山浦)와 부산진(釜山鎭)이 있던 이 거점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부산의 배경이다.

동래지역의 젓줄이었던 온천천은 유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유역에선 벼, 보리, 미나리, 연뿌리 등이 잘 자랐다. 예전에는 상류 쪽을 범어천, 중하류 쪽을 서천 또는 동래천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온천천으로 합류하는 약 700m 동래천(기점: 금정구 장전동 574-1 동남단, 종점: 동래구 장전동 온천천 합류점)만이 지방하천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외 소하천들로는 안락천, 쌍미천, 거제천, 사직천, 미남천, 명륜천, 금정천, 건너천, 산저천, 소정천, 부곡본동천, 장전천이 온천천과 연결되어 있다. 청룡2호교, 청룡교, 구남산교, 남산5교, 남산6교, 남산4교, 남산교, 신암교, 구남교, 두실교, 안뜰교, 구서교, 금정교, 부곡교, 장전교, 대부교, 온천2교, 온천5호교, 온천교, 동래교, 충렬교, 온천2호인도교, 세병교, 수연교, 연안교, 이섬교, 연산교, 안락교가 온천천이 흐

부산의 하천, 이제와 오늘 ④

--'숨쉬는 동천' 대표 이용희(34회) 동문 기획탐방--



콘크리트 구조물부터 철거 시작...생물 다양성 회복 최고의 명품 친환경 자연생태 하천, 자부심 안겨줘



▲온천천 연안교 부근에 설치했던 수질정화시스템 시설

◀온천천비점오염저감시설.



온천천의 외가리 모습.

르는 수면 위로 통과하는 교량들이다.

특히 부곡교, 세병교, 이섬교에는 수질자동측정망(수온,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염분, 탁도, 클로로필a chl-a, 전기전도도 TDS)가 있고 안락교에서 장전역 구간의 상습 침수 구역 일대에는 홍수 자동예측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온천천을 큰 하천이라는 뜻에서 대천이라고 부르던 옛날에는 대천교(大川橋)가 있었으며, 임진왜란 때 조선 병사들이 온천천의 물로 피문은 병기를 씻던 곳인 세병교(洗兵橋)를 이전에는 광제교(廣濟橋)라고 불렀다.

도심지에 있는 온천천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고도성장 시기에 급속히 피폐(疲弊)해지면서 심각하게 수질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로 많은 경공업 중심의 기업들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천천으로 몰려왔었는데 송월타월, 태창, 태광, 미원, 평화유지, 럭키화학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도로부

지가 만들어지고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구서역, 장전역, 부산대역, 온천장역, 명륜역, 동래역 등의 지상역사(驛舍)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콘크리트 기둥들과 도시철도 교각들도 온천천의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끔 만들었다.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온천천 일부 구간이 직선화와 콘크리트화 되었다. 이 외에도 상류에서의 무허가 상수(上水)와 용수(用水)의 이용 급증이 건천(乾川)화를 만들었으며, 중하류에서의 제방 축조와 제방 옆 도로 건설은 저류 기능 상실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온천천의 수질오염은 나뉘는 쓰레기들과 유입된 오폐수로 가속화 되었다.

거기에 전시행정까지 한몫 했다. 하천 개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하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채 홍수방제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천 구역의 양 호안과 하상 3면을 콘크리트로 직선화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오히려 유수(流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수직 호안단면을 만들고 저수로와 하도, 고수부지까지도 콘크리트화한 것이다.

이렇게 온천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자 마침내 2000년을 기점으로 온천천 살리기 사업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는 공사와 함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서 생태계를 복원시켰다.

그러자 온천천에 벌, 나비, 잠자리, 메뚜기, 무당벌레 등의 곤충과 붉은머리오목눈이, 황새, 학, 직바구리, 오리, 쇠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붉은부리갈매기 등의 조류가 날아왔다. 버들치, 갈겨니, 잉어, 붕어, 미꾸라지, 가승어, 옆새우 등의 어류와 강아지풀, 개불알꽃, 낙지다리, 해바라기, 쑥부쟁이, 억새, 나팔꽃, 남산제비꽃, 별꽃, 분꽃, 붓꽃 등의 식생도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연어와 함께 천연기념물 1급의 수달까지 등장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고 비오톱(Biotope)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온천천에 낙동강 유지용수를 공급하면서 중금속 농도가 낮아지고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도 좋아져 2010년부터는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가끔 원인 모를 물고기 집단폐사 발생으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생물이 살지 못했었던 온천천에 생태적 자연환경과 친수환경 기능을 비롯해 수변문화창출, 자연생태계보전, 도시경관보전기능 등 생태문화적 역할과 물문화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이 펼쳐졌다. 온천천의 수변공간 계획은 친환경적 회복에 따른 시민공원으로서의 활용과 공공성 증진, 지역주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온천천변에 카페거리, 자전거길, 산책로, 인공폭포, 수영장 등 시민공원이 조성되었고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사업, 차집 시설 개량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시민의 지적과 요구로 이루어진 시민주도형 하천살리기 운동이 펼쳐져 우리나라 제1호 하천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어 잘 정비된 하천이 온천천이다. 온천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친환경 자연생태 하천으로서 부산시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하천이다.<끝>

연인원 3,232명, 12년 명산 걸으며 돈독한 정 쌓아

100대 명품산행 완주 '간단한 보고서'

-김법영(33회) 용마산악회 100대 명품산행 단장



2010년 11월 7일 용마산악회 100대 명품산행 제1차 무주 적상산 등반 참가자들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2008년 6월 21일 설악산 진부령에서 남진하여 2010년 6월 20일 지리산 천왕봉까지 2년간 백두대간을 완주했다. 그 후 많은 용마 산악인들이 그동안 다진 동문들의 우정과 체력으로 1년에 4번 정기산행만 가기 아쉽다고 다른 기획 산행을 하자는 요청이 많았다. 당시 박수갑 회장님께 100대 명산 등반을 권하니 흔쾌히 수락해주었다. 첫째 일요일로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하였는데 살·추·석 등 명절이나 태풍 등 기상 여건으로 1년 12번은 안 되고 보통 10번 정도 산행할 수 있어 '10년 계획'을 잡았다. 2년 걸린 백두대간에 비하여 훨씬 방대한 계획이었다.

첫 산행은 2010년 11월 7일 무주 적상산으로 38명이 등반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10년이 지난 2020년에 마침 수 있었었는데, 2020년 2월 2일 인제 방태산을 96차로 산행한 후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할 수 없이 2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올해 남은 4회 산행을 5월과 7월에 하여 2022년 7월 3일 인제 대암산

에서 100차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다.

100차를 모두 합쳐 총 참가한 인원은 3,232명(동문 2,386명, 가족 및 지인 846명)이었고 실인원은 347명(동문 224명, 가족 및 지인 123)으로 평균 32~33명이 함께 했다. 실인원으로 최고 많이 참여한 기수는 33회(66명)였고 그 뒤가 35회, 31회, 37회, 41회 순서였다. 제일 많은 인원이 참석한 산행은 74명으로 2017년 5월 5~6일 64차 홍도(고치산 깃대봉) 등반이었다. 집행부가 예상할 때는 제일 먼 곳이라 참석자가 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가기 힘든 곳이라고 대량 참석한 기수들이 있어 관광버스를 2대나 전세하여 목포까지 가서 흑산도, 홍도를 관광하고 등산했다. 100대 명산에는 울릉도 성인봉도 들어있다. 33차로 2박 3일 계획이었는데 산행 후 기상악화로 이틀 동안 나 오지 못해 4박 5일(2014년 10월 3~7일)이 되어 제일 긴 일정을 기록했다. 해상 파도 때문에 출항을 못했지만 다행히 울릉도 날씨는 좋았고 2일간 울릉도 여러 곳을 상세히 관광하고 쉬는 여유를



김법영 용마산악회 100대 명품산행 단장

만끽했다. 참가 기수는 9회부터 61회까지로 52년 나이 차이를 보이는 보기 힘든 등반대였다. 보통 13회 선배님이 최고 위였고 약 40년간의 폭넓은 동문들이 함께 명산을 걸으면서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었다. 2017년 9월 13일 66차 포항 내연산 등반 때 13회 인곡(仁谷) 이태랑 선배님의 팔순 기념회식을 시작으로 그 후 윤기갑, 장영길 선배님의 팔순도 있었다. 이태랑 선배님은 '어진 골[□□]'이라는 호와 같이 항상 후배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팀의 최연장자로서 자리를 지켜 주셨고, 윤기갑 선배님은 나이를 잊으셨는지 항상 선두 그룹으로 산행하여 '기갑부대'라는 애칭을 얻었다. 장영길 선배님은 언제나 부인 이정숙 형수님과 함께하여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전체 13회 선배님의 큰 토대가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60대였는데 마침 때는 70대가 되신 17회, 22회, 23회 선배님들께도 건강하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고, 특히 고문이신 17회 하영수, 23회 박수갑 선배님은 많은 찬조와 함께 마지막 산행까지 완주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스스로 찾아와 후반에 열심히 참석한 51회 유상일, 김지원(그사이에 결혼도 하고), 멀리 근무하면서도 자주 참석한 김상곤 외 52회, 55회, 제일 막내였던 61회 신동훈 후배들은 앞으로 용마산악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90회 이상 산행한 분은 항상 수고한 총무 33회 김종만, 언제나 든든한 후미대장 이철관(이상 98회), 아름다운 영상 기록을 선물해준 39회 윤원욱(94회), 우리의 정신적 지주 장영길(91회) 선배였으며, 시작할 때 대장, 그 후 용마산악

회 회장, 마침 때 명품산행 단장을 맡은 본인이 97회, 항상 내조해준 아내 김미란 씨(93회) 등 6명이었다.

12년간 많은 인원이 100차나 산행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로서 등반대의 의료도 같이 담당하였다. 여러 가지 처치를 할 수 있는 많은 의료장비를 다소 무거울 정도로 배낭에 넣고 다녔는데, 유비무환(有備無患)인지 다행히 우리 팀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었다. 93차 두타산 하산길 거의 다 내려와서 35회 후배가 바위 위에서 사진 찍다가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져 왼팔에 금이 간 것이 제일 큰 부상이었다. 다행히 수술하고 지금은 괜찮다.

가장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사건은 2018년 1월 6일 눈이 약간 쌓인 94차 포천 명정산 산행이었다. 하산길 중간에 이태랑 선배님이 눈길에 잠시 착각, 길을 잃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핸드폰을 차에 두고 가서 연락도 안 되고 추운 겨울 산이라 119에 연락하니 인근 119차와 대원들이 대거 와주었다. 다행히 선배님은 오랫동안 단련된 산행 체력으로 혼자 더 북쪽으로 하산하여 산 아래 첫 민가에서 전화를 주셨다. 약 2시간가량이었지만 함께 간 동문들이 각자 모든 신들에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랜턴도 없이 겨울 산을 혼자 3시간가량 약전고투하면서 무사히 하산한 선배님의 정신력과 체력에 가장 감사한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은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하여 산림청에서 발표했다. 100대 명산 산행이라고 하지 않고 명칭을 '100대 명품산행'이라고 한 것은 중·고교 동창회 중에서 백두대간을 완주하고 100대 명산을 산행하는 명품 동문산악회는 없을 것이고, 명산 따라 그곳의 좋은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느끼는 명품산행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23회 박수갑 당시 회장이 제안하여 모두 찬성하며 정했다.

<기사 15면에 넘김>

100대 명산 산행 순서

차수	산이름	높이(m)	위치	날짜
1	적상산	1,034	전북 무주	2010-11-07
2	금남산	701	경남 남해	2011-01-02
3	남원산	466	경북 경주	2011-02-06
4	백운산	1,218	전남 광양	2011-04-03
5	화악산	1,468	경기 가평	2011-05-01
6	무등산	1,187	광주, 전남	2011-07-03
7	금정산	802	부산, 경남	2011-08-07
8	구병산	877	충북 보은	2011-10-09
9	팔영산	609	전남 고흥	2012-01-08
10	백운산	904	경기, 강원	2012-02-05
11	무학산	761	경남 마산	2012-03-04
12	두륜산	700	전남 해남	2012-04-01
13	지리산	1,915	경남, 전북, 전남	2012-05-12
14	가야산	1,430	경북, 경남	2012-06-03
15	가지산	1,240	울산, 경북, 경남	2012-07-01

차수	산이름	높이(m)	위치	날짜
16	황석산	1,190	경남 함양	2012-09-02
17	천관산	723	전남 장흥	2012-10-14
18	월출산	809	전남 강진,영암	2012-11-04
19	주흘산	1,106	경북 문경	2013-01-06
20	금수산	1,016	충북 단양,제천	2013-02-03
21	조계산	884	전남 순천	2013-03-03
22	비슬산	1,084	대구 달성	2013-05-05
23	청량산	870	경북 봉화	2013-06-02
24	선운산	336	전북 고창	2013-09-01
25	장안산	1,237	전북 장수	2013-11-03
26	한라산	1,950	제주	2013-11-30
27	도락산	964	충북 단양	2014-01-05
28	지이망산	398	경남 통영	2014-03-02
29	연화산	528	경남 고성	2014-04-06
30	황매산	1,108	경남 산청,합천	2014-05-11
31	월악산	1,094	충북 제천	2014-06-01
32	모악산	794	전북 전주,김제,완주	2014-07-06

차수	산이름	높이(m)	위치	날짜
33	성인봉	984	경북 울릉도	2014-10-04
34	추월산	731	전북, 전남	2014-11-02
35	민주지산	1,242	충북, 전북	2015-01-04
36	태백산	1,567	강원 태백	2015-02-01
37	미륵산	461	경남 통영	2015-03-01
38	화왕산	757	경남 창녕	2015-04-05
39	운문산	1,188	경북, 경남	2015-06-07
40	대둔산	878	충남, 전북	2015-07-05
41	주왕산	721	경북 청송	2015-08-02
42	덕숭산	495	충남 예산	2015-09-06
43	운악산	936	경기 가평,포천	2015-10-04
44	명지산	1,267	경기 가평	2015-10-05
45	팔공산	1,193	대구,경북	2015-11-01
46	내장산	763	전북 정읍	2015-12-04
47	덕유산	1,614	전북 무주	2016-01-03
48	천태산	715	충북, 충남 영동	2016-03-06
49	칠갑산	561	충남 청양	2016-04-03

최북단 그 너머 북한 산이...“우리 산행 계속될 거야”

100대 명품산행 99차 가리산과 100차 대암산 산행기

-김미란(용마산악회 김법영(33회) 고문 부인)



지난 7월 3일 용마산악회 100대 명품산행 제100차인 제대암산등반 참가자들 모습.<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용마산악회가 백두대간을 마치고 100대 명산을 시작한 지 12년째, 드디어 7월 2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산행에 나섰다. 강원도 산이기에 1박의 여정이다. 흥천의 가리산과 인제의 대암산. 제일 접근하기 힘든 산이라 한다. 정상부도 그렇다고.

오전 7시 반 부산진역에서 만차인 44명을 싣고 출발하였다. 마지막 산행이라 그런가 보다. 5시간 반 정도 걸려 오후 1시쯤 산행 들머리에 도착하여 곧바로 산행에 들어갔다. 버스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어서 가능했다.

날씨는 장마 중이지만 너무 좋아 다행이었다. 햇살이 한창 강했으나 계곡에 접어들어 온도가 차를 확연히 느낄 정도로 시원했다. 역시 여름 산행은 계곡이 있어야지.

가리산 등산로는 그리 험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덥고 땀이 많이 나서 꽤 힘들었다. 정상 가는 길이 원래는 험하고 위험한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나무계단을 다 만들어놓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벌써 파손된 계단도 있었다.

정상까지 계단길이 계속 이어져 힘들었다. 정상 부근은 땀별인데다 좁아 정상석에서 인증샷만 찍고 바로 아래 그늘 데크에 앉았다. 간식도 좀 먹고 쉬다가 멋진 산그리메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하산을 시작했다.

늘 그렇듯 일찍 도착한 팀은 캔맥주로 뒤풀이 중이었다. 우리도 후배 덕에

얼음통에 맥주를 부어 시원하게 얻어 마셨다. 오늘 하루 힘든 산행도 서로의 격려 속에서 뿌듯하게 마무리했다.

이날 저녁식사는 인제의 '부산식당'에서 35회 용마회장단이 찬조했다. 한우불고기 전골로 맛은 괜찮았다. 결국 이번엔 여기 부산식당에서 4끼를 해결한 셈이었다. 저녁, 아침과 도시락 점심 그리고 하산 후 김밥까지...

식사 후 숙소를 찾아갔다. 어두운 시골길을 대형버스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 몇 번 유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겨우 도착해 방을 정하고는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다.

뒷날 아침 펜션에서 7시 출발. 20분쯤 후 식당에 도착해서 아침식사를 하고 각자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담고 대암산 들머리로 향했다. 9시 입장이어서 그 전에 도착해야 했다. 아침부터 길을 또 잘못 들어 다시 돌아 나오다 보니 시간이 좀 빠듯했다. 인터넷 예약으로 하루 세 타임 130명만 입산할 수 있는 최북단 산이다. 정말 가기 힘든 산이다. 소위 100대 명품산행의 마지막 산답다고나 할까?

그래도 이날 역시 날씨 좋고 구름도 너무 이뻐던 하루였다. 대암산 산행은 가이드 동행이 필요하다. 입구에서 용늪까지는 인솔 가이드가 맡고, 용늪에서는 전문 숲해설가가 설명을 해주고, 다시 인솔자가 정상 입구까지 안내해주었다. 정상가는 길부터 하산까지는 등산객이 알아서 하는 산행이다.

용늪은 참 특이한 곳이다. 마치 한라산 오름 중에 화산분화구처럼 움푹 팬 곳으로, 제일 높은 지대에 있는 습지라고 했다. 습지 보호차원에서 나무데크로만 걸을 수 있게 해놓았다. 스틱 사용도 금지이다. 그만큼 귀한 식물들이 자



용마산악회 100대 명품산행 제100차 대미를 맞으며 산행기를 쓴 김미란씨.

라는 곳이다.

이번 산행의 하이라이트인 정상부 암벽 부분은 왕복 구간이라 배낭을 벗어 놓고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다. 정상에 도착하니 전망도 좋았고 바위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정상석이 보이지 않아 '대암산' 종이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최북단이라 건너편 북한 지역 산도 보이니 느낌이 확실히 달랐다.

하산 길에 잠시 계곡에서 발 씻고 머리도 감아봤지만, 주차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알탕을 하면서 여름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후미가 무사히 도착하자 부산으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저녁식사로 받은 김밥과 마트에서 사온 술과 과자로 뒤풀이하며 즐겁게 내려왔다.

이렇게 12년 걸린 100대 명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국을 누비면서 힘든 산행을 '출산'으로 바꾸던 '장거리 버스 여정'이 이제 가끔은 그리울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의 산행은 계속 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산행코스를 고심한 대장님과 숙소와 식당 선정 등으로 수고하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회원님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13회 선배님들의 참석과 격려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마산악회는 계속 정기산행을 이어가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늘 산행을 하는 건강한 우리가 되길 바란다. 산과 같이 늘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산행을 통해 느낀 경험과 지혜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기사 14면에서 받음>

대한민국을 알고 싶거나,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100대 명산을 권하고 싶다.

100대 산행을 마치고 얼마 전 회장단 모임에서 차후 낙동정맥을 산행하기로 했다. 이제는 기획 준비할 필요 없이 따라만 가서 편할 것 같다. 낙동정맥 산행도 총동창회와 함께 용마산악회와 회원들의 화합과 심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산에는 수량이 풍부한 좋은 계곡도 많다.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知者樂水)! 산과 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는 우리 용마산악회원들은 어질면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차수	산이름	높이(m)	위치	날짜
50	운장산	1,126	전북 진안	2016-05-01
51	관악산	629	서울,경기	2016-06-05
52	마니산	469	인천 강화	2016-06-06
53	삼악산	645	강원 춘천	2016-07-03
54	재약산	1,189	울산,경남	2016-08-07
55	치악산	1,288	강원 원주,횡성	2016-09-04
56	소오산	559	경기 동두천	2016-10-01
57	감악산	675	경기 파주	2016-10-02
58	강천산	584	전북 순창	2016-11-06
59	백암산	740	전북,전남	2016-12-04
60	천성산	812	울산,경남	2017-01-01
61	태화산	1,027	강원,충북	2017-02-05
62	금오산	977	경북 구미	2017-03-05
63	서대산	904	충남 금산	2017-04-02
64	깃대봉	368	전남 신안(홍도)	2017-05-05
65	응봉산	999	강원,경북	2017-08-06
66	내연산	710	경북 포항	2017-09-03

차수	산이름	높이(m)	위치	날짜
67	신불산	1,209	울산 울주	2017-10-01
68	방강산	742	전북,전남	2017-12-03
69	명성산	923	경기 포천, 강원 철원	2018-01-06
70	축령산	879	경기 남양주, 가평	2018-01-07
71	계룡산	845	충남 공주,논산	2018-02-04
72	속리산	1,057	충북,경북	2018-03-04
73	황악산	1,111	충북,경북	2018-04-01
74	오봉산	779	강원 춘천,화천	2018-05-05
75	용화산	878	강원 춘천,화천	2018-05-06
76	대야산	931	경북 문경	2018-06-03
77	팔봉산	302	강원 홍천	2018-08-05
78	희양산	998	경북 문경	2018-09-02
79	소백산	1,439	충북,경북	2018-12-02
80	황장산	1,077	경북 문경	2019-01-06
81	도봉산	740	서울,경기	2019-03-02
82	북한산	837	서울,경기	2019-03-03
83	백덕산	1,350	강원 영월,평창	2019-04-07

차수	산이름	높이(m)	위치	날짜
84	마이산	685	전북 진안	2019-04-27
85	변산	508	전북 부안	2019-04-28
86	공작산	887	강원 홍천	2019-06-01
87	천마산	812	경기 남양주	2019-06-02
88	설악산	1,708	강원 속초,양양,인제	2019-07-07
89	가리왕산	1,561	강원 정선,평창	2019-08-03
90	백운산	883	강원 정선	2019-08-04
91	계방산	1,577	강원 평창,홍천	2019-08-31
92	덕항산	1,071	강원 삼척	2019-09-01
93	두타산	1,353	강원 동해,삼척	2019-10-06
94	유명산	862	경기 가평,양평	2019-11-02
95	용문산	1,157	경기 양평	2019-11-03
96	방태산	1,436	강원 인제	2020-02-02
97	오대산	1,563	강원 평창,홍천	2022-05-28
98	점봉산	1,424	강원 양양,인제	2022-05-29
99	가리산	1,051	강원 춘천,홍천	2022-07-02
100	대암산	1,304	강원 인제	2022-07-03

35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겸 환갑여행

전국서 85명 참가, 송정 펜션에서 1박2일 회포풀기

35회 동기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제대로 갖지 못했던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환갑여행(1962년, 임인년생)을 지난 6월 18~19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가졌다. 35회는 지난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생략하고 학교 측과의 공식행사만을 진행함으로써 남겨진 아쉬움을 이번 행사로 완전히 씻어냈다.

부산, 서울, 울산, 창원, 김해, 광양, 대전 등 전국에서 85명의 동기가 이번 1박2일 행사에 참가했다. 동기들은 서로 반가운 악수와 포옹으로 그간의 안부를 묻는 인사를 시작으로 밤늦도록 지칠 줄 모르게 만남의 행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정운성 총동기회 회장과 이명진 재경 동기회장이 의기투합, 실무진(추진단장 강현욱, 추진위원 문영선, 백현성, 남기균, 정한습)을 꾸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부산 동기들이 마련한 싱싱한 회와



35회 동기회가 지난 6월 18~19일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겸 환갑여행을 가졌다.

광양에서 육류도매업을 하는 동기가 마련한 족발과 찰밥 등 먹거리와 함께 소주와 맥주잔을 부딪치며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로의 이름, 얼굴 그리고 재학시절 기억을 쉽게 떠올리기 위해 참석인원 전원의 명찰에 1, 2, 3학년 소속 반도 넣는 등 추진단의 세심한 준비로 40년 세월이 지났어도 재학시절 추억을 소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동기회 응원단장 백현성 동기의 힘찬

선창과 함께 '후라 경고'와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면서 참석 동기들은 비록 환갑의 나이지만 마음은 10대 소년으로 돌아간 듯했다.

이튿날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고 출신이라는 것과 35회라는 소속감과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내년에 진갑잔치 개최 제안도 있었다. 일부 동기는 자갈치시장에서 꼼장어와 고래고기로 남은 회포를 풀기도 했다.

참석 동기들의 손에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겸 부산시 체육회장 동기가 협찬한 건강보조식품과 정운성 회장의 수건 그리고 이명진, 이영도, 백현성 동기들이 준비한 큰 선물이 들려있었다.

◇참석자=강현욱 김영재 남기균 문영선 문홍근 박인범 배성제 신동원 이남기 이영오 이철희 전성률 정용경 정충길 정한습 조효제 채인택 최석용 최성최형돈 하승훈(이상 재경) 강연석 구동성 권인근 김경환 김길호 김남수 김동일 김세정 김시중 김종태 김태희 김형준 도창호 문영호 박동렬 박정진 박창석 박창제 배중환 백현성 백현호 변상돈 서석권 서창하 손수범 손태섭 송진택 신보성 안병남 오문세 오시영 유병로 이경진 이승훈 이원우 이종철 이창렬 이창형 이현수 임상규 임성 장명조 장인화 전해진 정명섭 정운성 조신제 조영제 주남영 주인환 추병곤 한태영 홍성표(이상 부산) 김인수 전상건 이효성 손경호 박희찬 유철인 권기범(이상 울산) 박병배(마창진) 송호성(광양) 이기석(하동) 임경삼(포항) 최춘기(대전)

용마산악회, 정기산행 재개...금정산 올라

용마산악회(회장 서석권·35회)는 코로나19사태로 중단되었던 정기산행을 2년6개월 만에 정식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12일 올해 제1차 정기산행(총 222차)으로 금정산을 올랐다. 이날 산행에는 13회에서 52회까지 18개 기수에서 회원 및 가족 등 89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범어사 주차장에 집

결하여 산행안내 후 출발, 범어사~내원암~고당봉~북문~원효봉~의상봉~동문~산성마을 천하대장군(식당) 코스를 밟았다. 오후 4시경 식당에 도착해 해단식을 가졌다.

총동창회에서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으며, 용마골프회에서 30만원 찬조했다.



용마산악회가 정기산행을 2년 6개월 만에 재개했다.

용마산악회, 낙동정맥 산행 도전

100대 명품산행 후속...3년 정도 소요

용마산악회(회장 서석권·35회)는 지난 7월 초 100대 명품 산행을 완결하고 후속 산행으로 낙동정맥 산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9일 용마산악회 회장단은 양정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낙동정맥 산행은 총 25회차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소요기간을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용마산악회는 낙동정맥 산행은 연 8회, 용마산악회 정기산행은 연 4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행일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3/4분기 산행은 9월 추석 연휴와 겹치는 관계로 10월 둘째 일요일(10월 9일)로 확정하고, 이날 산행을 마치고 100대 명품산행 해단식과 낙동정맥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산행지는 구덕산이나 승학산 쪽이 유력하다.

◇참석자=김법영 100대 명품산행 단장, 김종만 〃 총무, 서석권 용마산악회 회장, 이동희 수석부회장, 백기현 부회장, 이종민 사무국장, 문상현 산행대장



덕경회가 지난 6월 27일 2차 정기모임을 가졌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재출범 덕경회, 회원 얼굴익히기

"존경·존중하는 우정의 만남"...네트워크 구축

지난 5월 중순 CEO(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급 이상의 상공인만으로 인적 재편을 하며 재출범의 기치를 내걸었던 덕경회가 지난 6월 27일 오후 연산동 부산시청 인근 부산시티호텔에서 2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썩수달 정기모임' 회칙 규정에 따라 재출범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회원 간 얼굴익히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1기 회원의 절반 가량이 참석, 모임의 순탄한 '항해'를 예고했다.

박종찬(25회) 덕경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덕경회 회원은 직종분야가 다르고, 업력(業力)이 깊고 낮고 다양하다. 네트워크 구축의 최고의 모임이라 생각한다"면서 "모두 사업에 성공하여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회원 간 유대 강화 방안으로 박 회장은 회원 사업장 방문 행사를 제안했다. 이

날 뒤풀이 행사 경비는 이종휘(32회) 사무국장이 찬조했다.

◇참석자=박종찬(25회·㈜제이텍) 정순길(30회·동광조명) 이종휘(32회·㈜제이메탈) 백영태(이상 32회·㈜삼보텍) 이동근(33회·JL TECH) 황기윤(34회·부일이엔씨(주)) 양호진(34회·다함건설) 이창(이상 36회·㈜엠디아이에스) 구동주(37회·대양레이저) 정재형(이상 38회·㈜삼성스틸) 백기현(38회·초량본가어묵) 하순호(이상 39회·㈜디디에스) 김준강(40회·파워펌) 윤종진(41회·㈜에스디텍) 박상욱(42회·㈜이즈커뮤니케이션즈) 한봉균(이상 42회·㈜한빛산업) 강병규(부산합동양조) 박형규(이상 43회·㈜한국과학모형) 안병규(승원조경건설(주)) 탁정환(이상 44회·D.P.M) 구자삼(37회·아이원 메로 88) 권우일(37회·대경커뮤니케이션) 김상수(37회·에스테크널리지) 조태성(37회·선일물산) 최상배(이상 45회·㈜엠에스테크) 이재등(50회·광명잉크(주)) 정유석(51회·37회·메디올포) 황종민(53회·37회·동아P&P).

웃음꽃 만발... '행복한 힐링의 시간'

경미회 제2회 스크린골프대회, 성공 지속 예감



제2회 경미회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웃음이 끊이지 않은 즐거움과 유쾌함의 연속이었다.”

제2회 경미회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를 시종 일관한 분위기를 표현한 말이다. 지난 7월 2일 오후 1시부터 사하구 골프존파크 다대나이스골프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었다.

박종찬(25회) 경미회 명예회장이 시상금 전액을 후원하는 이 대회가 올해도 성공적으로 치러져 지속가능성을 예감케 했다.

이날 경미회 5개 분과와 집행부·총동창회 연합팀 등 모두 6개팀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치른 뒤 인근 식당 ‘명가우두머리’에서 시상식과 만찬, 경품 추첨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출전 선수와 응원단을 포함 모두 46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최재혁(36회) 사하지구동창회장이 대표로 참가했다.

경기 후 만찬에 이은 시상식에서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은 ‘골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타이거 우즈의 말을 인용, “경미회는 언제 와도 즐

겁다”면서 조만간 재미있는 모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장인 박 명예회장은 “경미회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 야구후원회 회원 절반이 경미회 회원이다. 동문회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지원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박 명예회장은 앞으로는 홀인원상(50만원)과 이글상(2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은 대외협력분과가 거머쥐었다. 개인전에선 메달리스트에 정유석(51회), 신페리오 우승에 정재우(50회) 동문이 각각 올랐다(시상 내용 아래 게재). 단체전 1위팀원 박성영(53회) 동문은 유일한 언더파-1을 기록했다.

많은 찬조로 치러진 경품행사에서는



제2회 경미회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 시상식 경품행사서 최종 추첨에 당첨된 손창오(45회) 동문이 환호하고 있다.

폭소가 쏟아졌다. 모두 36명이 참가했고, 경품은 34개가 있었다. 이날 최종 경품은 남은 4명 중에서 2명을 추첨하는 것이었다. 결국 2명의 ‘빈손’이 가려졌다. 하지만 박 명예회장이 이들에게 10만원의 ‘불운 치유약’을 선사했다. 이날 참가자 모두가 행운의 선물을 받게 된(전무후무한 기록) 셈이다.

◇시상 내역=▲단체전-△1위(시상금 50만원) 대외협력분과(+11) △2위(30만원) 사회공헌(+30·다버디) △3위(20만원) 문화체육(+30) ▲개인전-△메달리스트 1위(30만원) 정유석(51회) +8△ 2위(10만원) 김민철(52회) +12 △신페리오 우승(30만원) 정재우(50

회) 70.4타 △ 2 준우승(10만원) 전삼록(41회) 72.6타 △니어(10만원) 감기환(47회) 6.44m △롱기(10만원) 이진배(43회) 248.9m △최다출전분과상(10만원) 대외협력·미래발전 △최다응원분과상(10만원) 친목교류

◇대회 참가자=▲대외협력 △A(개인전)-최원석 서승진 최우영 △B(단체전)-배봉건 권우일 김동현 박성영 △C(응원)-강인호 이동하 장지훈 김영휘 ▲미래발전 A-김대영 이재광 김지운 B-정용중 이충현 황종민 김태현 C-박보순 ▲사회공헌 A-전삼록 김상수 정재우 B-최영준 전삼록 박형규 정재우 C-김현진 ▲친목교류 A-이진배 윤상훈 구자삼 B-신봉준 이진배 윤상훈 구자삼 C-이양걸 신정일 ▲문화체육 A-정유석 김민기 김민철 B-배준수 김정현 정유석 김민철 C-손창오 문지성 강병규 임길환 우재준 ▲집행부+총동창회 A-최재혁(36회·사하지구동창회장) 박동식 감기환 B-최재혁 박동식 한중현 C-박종찬(25회·총동창회 고문) 김종명(29회·편집주간)

◇찬조내역=박종찬(25회·명예회장) 200만원(단체전·개인전 시상금 전액), 용마골프회(회장 이동근·33회) 30만원, 최영준(41회·고문) 상품권 30만원, 박동식(42회·회장) 상품권 30만원, 이양걸(41회) 치킨 8마리, 정용중(42회) 이가한우 상품권 20만원, 강인호(42회) 상품권 20만원, 윤상훈(44회) 보냉+보온+방수 가방 10개, 조태성 선일식품 먹거리 2박스+포카리 1.8L 12개, 구자삼 킹블랙타이거새우+메로선물세트 5개, 김상수(이상 45회) 브리지스톤 타이거우즈볼 5더즌, 최원석 상품권 20만원, 신정일(이상 46회) 벤츠정품 우산 5개, 이충현(49회) 보리에브레드 팩토리 빵 6봉지+약 40대 주차 지원.

사진·동영상은 김태현(55회) 동문 담당.

경미회, '야구관람&치맥' 행사 "활력, 팍팍!"

회원·자녀 29명 참가...반응 좋아

경미회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야구관람&치맥' 행사를 사직야구장에서 열었다. 회원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1명과 자녀 8명 등 총 29명이 함께했다.

이날은 롯데-KT의 시합이 있었다. 경기 시작 전 롯데 차세대 에이스 최준용(74회) 동문이 경기장 밖으로 나와 경미회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경미회 참가자들은 최 동문의 준수하고 예의바른 모습에 '광팬(□fan)'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경미회는 이날 행사를 두고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였다는 좋은 반응이 나와 매년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

◇참석자(+는 가족 동반수)=△대외협력분과-강인호(42회) 조청래(45회)+1 최진영(49회) 김동현(50회)+1 박성영(53회) 이동하(54회)+2 장지훈(55회) △미래발전분과-박보순(51회)+1 △사회공헌분과-최영준(41회) 박형규(43회) 탁정환(44회)+1 이재진(54회) +1 △친목교류분과-정민호(47회) △문화체육분과-문지성(42회)+1 손창오(45회) 김민기(49회) 김정현(50회) △집행부-박동식(42회) 감기환(47회) 한중현(52회).



경미회가 지난 6월 10일 '야구관람&치맥' 행사를 사직야구장에서 가졌다.



롯데 차세대 에이스 최준용 동문이 경미회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남고 OB덕형, 노브랜드배 출정식 갖는다

8월 15일 무렵 필승 결의...9월 17일 개성고와 예선 첫 경기

신세계 그룹 이마트 주최 '노브랜드 배 고교동창 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등학교 OB덕형'(이하 경남고팀)은 8월 15일 무렵 출정식을 갖고 필승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경남고팀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오후 경남중 운동장에서 대회 출전 유니폼 전달식을 갖고, 자체 연습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 후 청백전을 하며 경기 감각을 조율했다. 김성환(61회), 박민규(63회) 동문이 경기 심판을 맡았다.

경남고팀은 몇 차례 연습을 가졌던 경남고 운동장이 교내 석면제거 작업으로 사용 불가하게 되자 7월 16일부터 연습 장소를 경남중으로 변경했다. 경남중 김상욱(53회) 감독을 비롯한 코

칭스태프는 피칭머신, 연습공, 음료수 제공, 그리고 운동장 사용 등 연습 효과 높이기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서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총동창회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웠다.



'노브랜드배 고교동창 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등학교 OB덕형'이 지난 7월 23일 경남중 운동장에서 대회 출전 유니폼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팀은 부산고팀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갖기로 하고 8월 7일(일) 부산고 운동장에서 1차 연습경기를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 권역별 출전팀이 확정되고, 예선전 일정이 나왔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전은 16강전부터 치르게 된다. 권역별 예선전 일정은, 서울A 8월 13일, 서울B 8월 14일, 경기·인천 9월 3일, 대전·충청 8월 28일, 전라 8월 20일, 경상A 9월 17일, 경상B 9월 3일, 제주 8월 13~14일이다.

경상권 A조에 편승된 경남고팀은 개성고와 오는 9월 17일 오전 11시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 야구장에서 예선 토

너먼트 첫 경기를 갖는다. 여기서 승리하면, 당일 오후 1시 예선 토너먼트 2차전을 치른다.

◇찬조 내역=김대욱 총동창회 회장 300만원,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200만원, 이문열 덕형리그 고문 50만원, 이운조 덕형리그 회장 30만원, 총동창회 130만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동문, 은퇴 투어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55회) 동문이 지난 7월 28일부터 구단별 은퇴투어를 시작했다. KBO리그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투어를 갖는 건 '국민타자' 이승엽에 이어 이 동문이 두 번째다. 이 동문은 이날 두산전을 앞두고 100명의 팬들에게 등번호 '10번'이 박힌 모자와 함께 '덕분에 감사했다'는 친필 카드를 나눠줬다. 이 동문은 경기 중 보호대에도 '팬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구를 새겨두었다.

은퇴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상대 구

단의 선물 증정식에서 이 동문은 두산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의 특산물 달항아리를 받았다. 이 동문의 좌우명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래리 서튼 롯데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대호는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4번 타자 중 한 명이자,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라고 호평했다.

이 동문은 대한민국 야구를 빛낸 거포이다. 명실공히 '조선의 4번 타자'이다. 얼마 전 있었던 올스타전 홈런레이스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동문은 2001년 KBO리그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7월 27일까지 통산 1,917경기를 뛰며 타율 0.308, 2,130안타 363홈런 1,373타점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가 2010시즌 세운 9경기 연속 홈런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이 동문은 경남중고 6만여 동문은 물론이고 부산시민, 나아가 전국민에게 감동과 큰 자부심을 안겨준 '영웅'이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팬들은 그에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이 동문은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동문이 은퇴 후 어디에 있든 그는 최동원(31회) 동문과 함께 언제나 우리 가슴에 '영웅'으로 자리할 것이다.



야구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이대호 동문.



지난 6월 11일 사직구장에서 '경남고 OB-YB 감쪽 동문회'가 열렸다.

사직구장에서 경남고 OB-YB 감쪽 동문회

롯데, 황금사자기 우승 축하 특별이벤트 마련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6월 11일 kt전을 '경남고 매치데이'로 명명하고 사직구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연고지 학교 경남고의 황금사자기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전광열(44회) 감독을 비롯,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전원이 초대받아 경기 관전의 기회를 선물 받았다. 또한 플레이볼 직전 황금사자기 MVP 나윤호 군과 주장 김범석 군이 각각 시구자와 시포자로 나서는 영광을 안았다.

이날 하이라이트로 경남고 선수들과 롯데, kt의 경남고 출신 선수들은 그라운드 한복판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행사는 '경남고 OB-YB 감쪽 동문회'라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롯데에서 1975년생 임경완 투수코치를 필두로 이대호, 김유영, 서준원, 한동희, 최준용 선수가 나왔고, kt에서는 장성우와 하준호, 김준태, 장준원 선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허근영(52회) 동문, 초등야구대회 창설

허근영(52회·오각스포츠 대표) 동문이 올해 창설하여 개최한 '제1회 오각스포츠배 부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지난 6월 13~17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리틀야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 주최는 오각스포츠와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은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와 경야회가 맡았다. 특별히 경남중고 52회 동기회가 후원에 참여, 동기애를 과시했다.

이 대회에서 동일중앙초등학교가 우승, 감천초등학교가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찬조 내역=경남중고 총동창회 20만원(생수 지원), 우영환 100만원, 배병훈 50만원, 임태영(이상 40회) 50만원, 탁정환(44회) 100만원, 구자삼(45회) 50만원, 정신(47회) 100만원, 김동현(50회) 10만원, 김동주(51회) 뒤풀이 식대.

제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 8월 18일 오후 6시 성대한 개막식

제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가 오는 8월 18~21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제1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힘입어 올해는 대회명이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에서 '부·울·경 리틀야구대회'로 바뀌었다. 대회 주최는 경남중고 총동창회와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며, 주관은 경야회(경남고 야구 동문)와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다.

올해는 지난해 출전한 부산·경남 16

개팀에서 진해구와 울산 남구가 추가돼 총 18개팀이 열전을 벌인다. 참가팀은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양산시 양산용상 진해구 울산남구 등 각 지역 대표팀이다. 지난 7월 27일 비대면 출전팀 대표자회의에서 경기일정과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주관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이번 2회 대회 개막식을 성대하고 멋지게 치를 계획이다. 지난해 1회 대회는 거리두기로 개막식 행사를 간소화

게 진행했다. 주관처는 '경남고'라는 모교 이름을 걸고, 경남고 출신 동문들이 펼치는 행사인 만큼 많은 동문들이 개막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호소하고 있다.

주관처는 이번 대회의 목적을 △경남중고 명문고 재인식 및 전통과 역사 홍보 기회 △경남고 야구 발전 △부산시 야구발전 △꿈나무들의 경남중고에 대한 동경 △야구인재 스카우트 용이 등으로 꼽고 있다.

*후원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661-878329 김동주 경야회
◇후원 내역(7월 27일 현재)=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200만원, 박종찬(25회) 고문 100만원, 허부남 100만원, 김종휘(이상 37회) 100만원,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100만원, 정순환(39회) 50만원, 안병규(44회) 100만원, 정신(47회) 경야회부회장 100만원, 김동현(50회) 10만원, 김동주(51회) 야구후원회 사무국장 100만원, 김현진(52회) 10만원, 송승준 50만원, 이상훈 원동중 야구감독 50만원, 김상욱(이상 53회) 경남중 야구감독 50만원, 55회 동기회 30만원, 경미회 30만원, K-청마회 20만원. (7월 27일 현재)

경남고 야구부, '최강 몬스터즈'에 한 수 배워 3판양승제... '프로' 출신과 대결 큰 자부심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경남고 야구부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창단한 '최강 몬스터즈'와 맞대결을 펼쳤다. '3판 2승제'로 지난 7월 25일에 이어 8월 1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렸다.(경기 내용은 방송 일정 이유로 사전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창회보에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경남고 야구부는 기량면에서 몇 수 위인 '최강 몬스터즈'에게 배운다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다.

두 차례 경기에서 야구 애호가 동문

들과 가족, 학부모 등 200여명이 삼복더위 속에서 원정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강야구'는 프로야구팀에 대적할만한 11번째 구단을 결성한다는 포부를 갖고 전국의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야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최강 몬스터즈'는 프로야구 은퇴 선수나 대학 재학 중인 야구선수로서 실력으로 명성을 날린 최고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앞둔 경남고는 이번 두 차례 경기로 실전경험을 쌓고, 경기 감각을 유지한다는 교



경남고 야구부가 지난 7월 25일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최강 몬스터즈'와 맞대결을 가지려고 하는 장면.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육적인 차원에서 '최강팀'과의 시합에 응했다.

전광열(44회) 경남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프로선수 출신 선배들과 함께

경기를 해봄으로써 자부심도 갖게 되고, 자신의 기량을 가늠해보면서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야구후원회 연관계약구좌수 현황

2022년 7월 22일 현재

특별회원	
고문	21구본능 1000
회장	22유재진 1200
수석부회장	25박종찬 600
부회장	24변용준 120
29김대욱	120
33박명진	120
37허부남	360
40우영환	120
44김 황	120
44익 명	120
50정재우	120
53이상훈	120
20박용덕	120
정회원	9이 용 12
19이춘만	12
22김원주	12
24김도현	12
25김종현	12
27이요섭	12
29사공운	60
33이운조	12
34전재병	12
37김형기	12
38한민득	12
38문귀상	12
25김진철	120
30윤성덕	120
34이성업	120
41김정태	120
44강경호	120
45김상수	120
51김동주	120
53김권우	120
25김진철	120
26박상호	300
30박정태	120
35장인화	120
38정재형	120
42정용중	120
44윤상훈	120
46최원석	120
52서정수	360
52김민철	120
28박영호	120
31오민일	120
35백현성	120
39정순환	120
43강병규	120
44김정훈	120
47정 신	120
52김민철	120
17이수창	100
24허구연	1000
28김용희	120
32이종휘	120
36박진용	120
39박근태	120
44탁정환	120
44배봉건	120
48유성한	120
53송승준	120
17배재욱	12
19임우근	12
25서병수	12

정회원	
39윤원욱	12
41윤형배	12
43김대영	12
44김성준	12
45진상영	12
46서승진	36
47최경훈	12
47정준홍	12
48임경완	12
51이정우	12
51안승훈	12
52허근영	12
54김영빈	12
55김현달	36
55박찬우	12
55최병준	12
55강문성	12
58박찬영	12
60최규환	12
62신본기	12
39박종국	12
41김영철	12
43이상현	12
44최주섭	60
45조청래	12
47김기환	12
47강백중	12
47손호준	12
48박선용	12
51오건진	12
51이건영	12
52김민수	12
54이유태환	12
55이육한	12
55박정민	12
55최유성	12
55백광일	12
58오응경	12
60유영재	12
74최준용	12
40임태영	50
41류지섭	12
43김신현	12
44문형준	60
45손창오	12
47최원창	12
47정민호	12
47차기혁	12
50강병규	12
51박보순	12
51임용관	12
53김경남	12
54김태완	12
55김현종	12
55장지훈	12
55이동규	12
55최성원	12
58전성기	12
60김현우	12
40배병훈	12
42문지성	12
44최 현	60
44김성훈	36
46김백권	36
47정윤호	12
47윤필호	12
47정기주	12
50김동현	12
51신현식	12
52최문성	36
53김상욱	12
54이동하	12
55김태현	12
55황시우	12
55허 준	12
55최익재	12
58주재형	12
61김재용	12
50회동기회	60
경미회 사회공헌	120
경미회	300
용마골프	100
총 참여인원 : 263명 총 금액 : 152,980,000원	
야구후원회 계좌(부산은행) 101-2077-9886-02 유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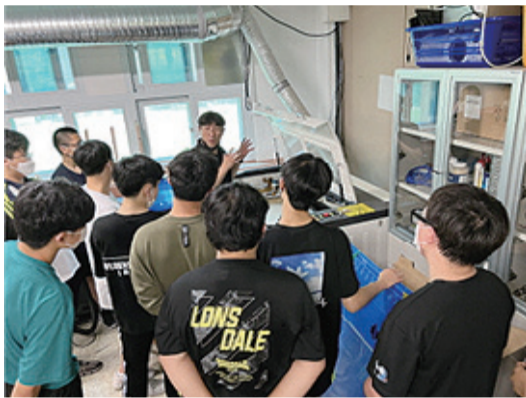
‘경남고 버스킹’서 음악적 기량 발산



경남고는 지난 5월 25일 ‘성찰의 집’ 프락에서 생명 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남고 버스킹’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발산하는 자리였는데, 전교생과 전 교직원이 음악을 통해 함께 어우러진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생명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정서를 순화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동아리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경남고는 지난 7월 1일 기말고사 직후 전 학년 전일제의 동아리별 특색활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사진).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활동이 어려웠던 동아리 활동을 체험학습의 형태로 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은 평소 흥미가 있던 분야에 대한 실질적 체험을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생동감 있는 현장 경험과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진로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학기 종료 ‘한밤의 시 낭송회’



경남고는 지난 7월 11일 한 학기 동안 학업과 수업에 지친 학생과 교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시와

노래가 있는 ‘한밤의 시 낭송회’ 행사(사진)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시나 자작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음악 연주를 하는 라이브 라디오처럼 진행되었다. 특히 동네 초청 가수의 노래와 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학생들과 교사는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 서로를 격려하며 다가오는 2 학기를 응원하기도 하였다.

1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진행

경남고는 지난 7월 8~11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였다(사진). 학생들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인권 침해 문제 예방에 교육 목적을 두었다.



해당 교육은 25인승 버스에서 실시되었다. 외관은 버스이나 실내는 작은 교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번 ‘찾아가는 성교육 버스’를 통해 학생들은 발달 수준에 맞는 성문화와 성에 대한 교육적 내용을 수업 받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한 지식을 배웠다.

한 교육적 내용을 수업 받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한 지식을 배웠다.

경남삼천지교, 삼시세끼 사진콘테스트

2022학년도 ‘경남삼천지교(三踐之教, 경남중 학부모회명)’는 다양한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건강한 밥상을 통해 학업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며 가족 간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자 ‘삼시세끼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다(사진).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편리함이 사랑, 행복, 건강, 웃음이 담겨있는 엄마 밥상과 아빠 밥상을 대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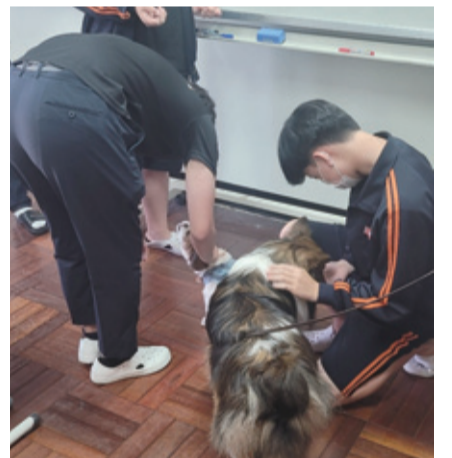
동창회 장학생 6명 선발, 장학금 전달

2022년 1학기 경남중학교 동창회 장학금이 각 학년당 2명씩 총 6명의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이강인(3학년), 김민재(3학년), 이준서(2학년), 권오성(2학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급 면학분위기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수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교과선생님들이 높이 평가했다. 김범석(1학년), 이동희(1학년) 학생은 학업성취에 대한 의지가 높고 둘 다 학급 반장으로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급 내에서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동물매개 및 미술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남중은 지난 학기에 반려 동물에 관심이 많고 진로와 연계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매개 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사진).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김범석 교수팀이 내교하여 주당 2시간씩 8회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춘기 복잡한 학생들의 마음과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반려동물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중학교에서 전문적인 반려동물매개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동물매개 활동

한편 경남중은 1학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이 평소 가

지고 있던 고민을 미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전문 상담 강사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시키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베이킹 교실 운영으로 학습력 향상



베이킹 교실

경남중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정서 순화와 자존감 강화를 위해 교내에서 베이킹 교실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 교사와

1:1 멘토링을 하며 학습을 보충하고 있던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 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학습력을 향상하

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함께 초콜릿 쿠키와 마들렌 만들기를 하였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Tel. (051) 253-7788

동기화·동호회 및 직능단체

16회 = 정기총회



지난 6월 27일(월) 부평동 구포집에서 3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타계한 동기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회무보고(진행 서고명)가 있었다. 이어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통과시켰다. 임원선출(사회 정영일)에서 회장 강종국, 감사 이점일이 선출되었다.

연회 시 3명이 다음과 같이 건배사를 했다. △송규정 : 일육동기회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 △김조 : 16회 동기회를 위하여! △윤장조(재미) : S~Y & ☐bt (영어로 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음)

코로나로 마스크를 찬데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퍼뜩 얼굴이나 이름을 알 수 없어 33명 모두 명찰을 부착하였다.

참석자 : 강종국 김무광 김봉구 김인국 김정균 김조 김한선 박기용 박문규 서고명 서정호 서태복 손송방 송규정 안국정 옥무웅 윤세진 윤장조 이점일 이맹립 이명수 이양근 이종철 장사충 정영일 정우광 주기민 채경일 최양주 최정일 하주열 한일랑 홍정길

16회 = 만남의 장



지난 7월 29일 오후 6시 서면 삼오정에서 동기회 만남의 장을 가졌다. 2020년 8월 7일(금) 용문반점 모임 후 2년 만(6월 27일 정기총회 제외)에 처음이다.

참석자 : 강상권 강종국 권명석 김광용 김무광 김봉구 김상호 김인국 김정갑 김한선 박기용 박민소 박영수 서고명 서태복 손송방 윤세진 이점일 이맹립 이방소 이양근 이영일 정영일 주기민 최정일 하주열 한일랑 현승부 홍정길

일육산악회 = 성지곡 수원지 뒷길 산행



지난 7월 3일(일) 일육산악회(회장:서태복 총무:최정일)는 성지곡 수원지 뒷길 산행을 하였다. 산행 후 서면삼계탕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17회 산악회 = 옛 송정철길(해운대 블루라인) 산행



지난 6월 5일(일) 봄 가뭄이 심해 메말라 있는데 반가운 비 소식이다. 초여름 반가운 비인데 어때서. 10명이 중동역에 오전 10시에 모인다. 가랑비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는데 우산과 비옷으로 채비를 하고 해운대 블루라인으로 출발. 미포 입구는 빗속에 나들이객들로 붐빈다. 코로나로 갇혀있던 갑갑함을 연휴 중에 푼다. 위로는 모노레일이 지나고 아래로 만석인 관광기차가 지나고, 어떻게든 사람 붐비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데 청사포에 도착. 봉장어 구이로 짜릿한 소맥 한잔이 빗속을 지나온 몸을 데운다. 점심 후 계속 송정으로. 다시 송정에서 달맞이 고개까지 숨을 몰아쉬며 오른다. 점심시간 포함 5시간. 해운대에 되돌아와 산행을 마친다.

참석자 : 김길호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청홍 송유근 신정아 오태식 이견우 하영수

18회 = 바둑대회



18회 연중행사인 동기회 바둑대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지난 6월 28일(화) 오후 2시 서면 유원골든 1913호 동기회관에서 대진표 추첨에 이어 열전에 돌입했다. 출전선수가 예년에 비해 좀 줄어 10명이 참가했다. 응원단은 21명이었다. 오후 5시반 대회가 종료되고 성적발표와 간단한 시상(상품권)이 진행됐다. 뒤풀이행사로 서면 다운정 한정식에서 31명이 참석한 한우고기회식이 있었다. 찬조금 270만원으로 흑자 행사가 되었다.

△성적 : 공동우승- 손천익 진상영, 준우승- 최희영, 3위- 강덕용

△참가선수 : 조양수 강덕용 진상영 조성재 김태균 손천익 장기영 최희영 김사권 김동선

△응원단 : 김기성 김길제 김명조 김병수 김용기 김정태 김홍국 노성현 박건태 박동오 박수원 박순정 서부원 서차수 송유봉 오수명 우원호 정정돈 천두갑 하영일 하진봉

△찬조자 : 김길제 100만원, 서부원 70만원, 조성재 30만원, 박동오 20만원, 김사권 박수원 우원호 정정돈 천두갑 각 10만원

18회 = 봄 야유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봄야유회가 지난 5월 29일 재개되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개최되다 3년 만이다. 15부부팀과 27명의 싱글 등 총 57명이 교대지하철역에서 모여 김길제 고문이 제공한 2대의 버스편으로 배내골로 향했다. 배내골 입구 주암계곡 임도를 2시간정도 삼삼오오 걸으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간 화합의 시간을 즐겼다.

점심은 봉계에서 한우로 포식하고 밀양한천테마파크(김길제 고문 경영)로 이동, 전시관에서 시식과 쇼핑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 자리서 서부원 신임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김길제 고문은 밀양한천 선물세트(계 220만원상당)를 참가자에게 전달했다. 오후 5시경 출발지인 교대전철역에 도착, 6월의 바둑대회와 가을야유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참석자 : 강덕용 김기성 김병수 김사권 김원태 김홍국 노성현 배세원 서부원 서차수 우원호 옥병규 정기룡 정정돈 하영일(이상 부부팀) 강영호 김길제 김용기 김재경 김정태 김태균 박건태 박석도 박순정 박영복 박종순 박준성(울산) 손영근 손천익 송유봉 오수명 이재일 이호국 장기현 전세웅 조정갑 진상영 천두갑 최희영 한영선

18회 삼목회 = 정기모임



18회 삼목회(해운대 지역 동기 매월 3번째 목요일의 만남 모임)는 지난 7월 21일(목) 오후 6시반 감만동 쌍희반점점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동기 23명이 각종요리를 포식하며 그동안의 안부와 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비는 2만원이었으나 찬조가 160만원이 되었다.

△찬조자 : 강영호 20만원, 김길제 50만원, 김원태 30만원, 서부원 30만원, 정기룡 30만원

참석자 : 강영호 김길제 김동선 김만근 김사권 김용기 김원태 김일석 김정태 노성현 박건태 박수원 박영복 박종순 서부원 송유봉 이재일 정기룡 정정돈 천두갑 하영일 하진봉

19회 산악회 = 관악산 모자봉 산행

지난 6월 19일(일) 1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관악문~관악공원~모자봉~삼성산~관악산 분기점 4거리~제4광장~관악계곡길~경전철 관악산역~신림역 '본화로' 코스로 산행을 하였다.

<기사 22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1면에서 받음>



산행거리 : 5.6km, 최고점 : 232m, 산행시간 : 2시간 11분.

참석자 : 광호 문찬 정덕 인선 용환 상만 종선 철원 유흥 순창



20회 = 생선회 축제

지난 6월 9일(목) 오후 6시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의 진동둔곶집에 회원들이 모여 모처럼 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싱싱한 생선회에다 반주를 곁들이며 환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2019년 송년회 이후 동기회 모든 활동이 일제히 중단되었다가 2년 반 만에 개최된 생선회축제에 49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회 = 7월 월례회

20회 동기회(회장 장상배)는 지난 7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서면 소재 태진한우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미국 LA에서 참석한 박병철 동기, 대구에서 참석한 허규판 동기, 울산에서 참석한 남경열 동기, 창원에서 참석한 임지성 동기 등 원근각지에서 37명의 동기가 참석했다. 오랜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기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연스럽게 서로 안아 주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식사와 함께 정담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일부 애주가들은 서로 술잔을 들고 러브샷을 연출하면서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의 화두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자'였다.

참석자 : 강석근 강영환 김대원 김두영 김세준 김조동 남경열 노기태 류영덕 박기상 박병관 박병천 박병철 박옥양 박장대 박재봉 박재인 배서호 손상수 신현석 오경석 우철성 윤병규 이슬근 이종열 임지성 장병호 장상배 장춘식 정승창 조운태 주창웅 최장하 탁성식 표문배 허규판 허남균

24회 동기회 = 2022년 두번째 모임



지난 6월 24일(금) 오후 6시 미정횃집에서 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최우림 동기회장의 불참으로 최동우 수석 부회장이 모두 인사를 했다. 이어 칠레에서 귀국한 박외생, 전남 광양에서 온 김중섭, 서울에서 온 한예식 회원의 인사와 환영 건배가 있었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광두희 구자웅 김경남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김정권 김중섭 노상우 박외생 박태진 안명수 안상수 유흥석 이수이현우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장현동 정기춘 정영환 주점권 최동우 최명진 최승국 최원주 한예식 황규선

24회 산우애 = 6월 정기산행(제239차)



지난 6월 4일(토) 부산진역 앞~전세 버스~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버스~동선방조제 ~동선세바지~기도원~동선세바비~가덕명가 코스로 6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우애 집행부와 조재진 회원의 사전 답사로 확정된 조재진루트 트래킹이었다. 광두희 산우애 회장의 인사에 이어 경주 김헌태, 울산 서정득, 양산 구자웅, 제주에서 귀향한 백산흙, 오랜만에 참석한 정기춘 회원의 인사가 있었다.

참석자 : 광두희 구자웅 김성권 김영식 김인구 김인철 김헌태 박해성 배재일 백산흙 서정득 손세영 안태인 이현우 장현동 정기춘 조재진 최동우 최승국 태창업 황성동

24회 산우애 = 7월 정기산행(제240차)



지난 7월 2일(토) 해운대 대천공원 입구~폭포사~체육공원~안부~옥녀봉~대천호수~대천공원 입구~식당 코스로 7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우애 집행부와 황규선 회원의 사전 답사로 확정된 황규선루트 트래킹 후 장현동 회원의 안내로 식당으로 이동,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광두희 산우애 회장의 인사에 이어 칠레에서 귀국한 박외생 회원의 인사가 있었다.

참석자 : 광두희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박외생 배재일 안태인 안형수 이현우 장수현 장현동 정기춘 조재진 최승국 최원주 한승철 황규선

24회 이사빌(당구동호회) = 6월 정기모임



지난 6월 12일(일)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 결과 : 우승 김장현, 준우승 한승철.

2022~2023년 이사빌 회장은 김경남 회원, 2024년 회장은 박인호 회원이 맡기로 하였다. 준우승 2회 및 우수시 1점 Up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 광두희 김경남 김성권 김장현 김인구 노상우 박인호 임덕철 장현동 정기춘 주점권 최우림 최창림 태창업 한승철 황성훈

24회 이사빌(당구동호회) = 7월 정기모임



지난 7월 10일(일)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 결과 : 우승 장현동, 준우승 한승철

참석자 : 김경남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이재능 임덕철 장현동 최우림 태창업 한승철 황성훈

24회 후라회(야구 동호회) = 2022년 첫 모임 개최



지난 5월 10일(화) 오후 6시 30분 자갈치 성문식당에서 2022년 첫 모임을 가졌다. 2020년 11월 모임 이후 18개월 만의 모임으로 그동안 미루었던 결산보고가 있었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김경남 김명배 김인구 김인철 김학주 박홍규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태창업 황성동

24회 후라회(야구 동호회) = 7월 모임 개최

지난 7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자갈치 성문식당에서 5월 모임 이후 올해 두번째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종문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박홍규 이방우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최우림 태창업 황성동 <기사 23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2면에서 받음>



24회 남해수(남구+해운대구+수영구 지역모임) = 5월 모임



지난 5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외식1번가 해운대점에서 5월 모임을 가졌다.

2020년 11월 모임 이후 1년 6개월 만의 모임이었다. 차동렬 직전 회장의 인사로 모임을 시작, 장현동 신임 남해수 회장의 인사 및 건배제의가 있었다.

참석자 : 강동우 곽두희 김인구 김정권 배재일 배중갑 백산흠 손세영 여철우 이수 장민재 장현동 전문식 정영환 차동렬 최승국 최원주 황규선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7월 10일(일) 금정산 통일동산, 물만골에서 정기산행을 하였다.

참석자 : 김구화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곤태

25회 당구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8일(금) 당구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모임 후 대야성갈비(서면)에서 즐거운 저녁식사 뒤풀이를 가졌다.

참석자 : 김규진 오양득 옥동훈 이상영 이신화 장세훈 전상태

25회 골프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5일(화) 정산cc에서 2개조가 구름이 햇살을



살짝 가려주는 선선한 날씨 속에 유쾌한 분위기로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다.

26회 = 5월 월례회



지난 5월 26일(목) 서면 삼환축산에서 5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갖는 모임이라 많은 동기가 참석하였다. 코로나로 정기 모임이 없어 이날 이광태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50주년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날짜 : 2022년 10월 15일~16일, 장소: 호텔 또는 크루즈 - 재경과 협의 후 집행부에서 결정)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는 빙수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경비는 모두 박상호 회장이 부담하였다.

참석자 : 권해국 김종우 김지승 김택영 박상호(건) 박용석 박철홍 배용호 손영수 신형진 왕정일 윤희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 이영학 장경재 정익교 정인수 조만석 최수일 최윤림 최의수 최현(치) 허중

26회 = 7월 월례회



지난 7월 26일(화) 범일동 텐이몽에서 7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날씨 탓인지 동기들이 많이 참석하질 않았다. 이날 50주년행사에 대해 토의하였다.

*일시: 10월 15(토)~16일(일) *장소 및 일정 : 15일(토) - 낮 12시 경남고 도착 점심 식사 후 학교 구경 및 야구 경부전, 오후 6시 시그니엘에서 만찬. 16일(일) 오전 크루즈 투어 또는 낮 12시 연화리 점심식사 후 해산, 해산 후 경부 당구대회 예정.

*경비 : 박상호 동기회장-시그니엘 식대(2천만원) 및 경남고 기부금(1천만원) 협찬

*동기들 참가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은 동기회 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 계획

*상기 사항은 변경 가능. 좋은 의견 제시 요망.

참석자 : 강수남 권해국 김종우 김지승 박만식 박상호(건) 신형진 왕정일 윤희석 이경호 정거돈(2) 정익교 정인수 최수일 최윤림 최의수 허중



28당구회 = 3년 만의 경부대항전

28당구회(회장 조광제)는 지난 7월 2일(토) 오후 동창회관 내 KN당구클럽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8당구회 경부대항전을 3년 만에 재개했다. 최봉락 재경28회 동기회장과 조재명 재경28당구회장 등 재경팀 14명은 이날 오전 부산역에 도착, 동창회관 우미옥에서 중식을 하고, 본부동기회 조광제 28당구회장을 비롯한 본부팀 14명과 오후 1시부터 열전에 돌입했다. 단체전, 개인전을 섞은 점전 결과 재경팀이 14.5 대 13.5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오후 5시경 경기를 마치고 자갈치 미정횃집(38회 오종현 경영)에서 뒤풀이행사를 가졌다. 뒤풀이행사에 참석한 박종기 제28회 본부동기회장은 "오랜만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고 내년 서울 원정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재경동기들에게 신선한 회와 장어구이가 곁들여진 푸짐한 고향의 맛을 선사했다. 재경당구회원들은 오후 9시 열차편으로 귀경했다.

참석자 : △본부 28당구회 : 강용수 김양태 노영현 박영규 소유남 송재영 안풍 엄재홍 이만재 이철행 정성목 조광제 최석근 G국승규 △재경 28당구회 : 김보상 김재덕 김재주 김중섭 김태영 남시규 박형근 신광태 이정환 이진희 조재명 주광식 최봉락 최종철

28기우회 = 기우회장배 바둑시합



28기우회(회장 김정유)는 지난 6월 4일(토) 오후 3시부터 서면 부전기원에서 제3회 기우회 회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0명의 기우회원과 부전기원의 김종란 대표(3급)까지 출전하는 등 총 12명의 기사가 스위스리그 8명, 풀리그 4명으로 편성하여 열린 대국을 펼쳤다. 스위스리그부에서는 김용섭 동기가 우승, 김종란 대표가 준우승을, 풀리그부에서는 이관선 기우회 고문이 우승, 김부운 동기가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이날 김용섭 동기는 충북 청주에서, 정연찬 동기는 오랜 캐나다 생활에서 귀국하자마자 대회에 참석해 반가움을 더했다. 오후 6시 시합을 마치고 참가자 모두 부전시장 인근 '남천 멀치쌈밥'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박종기 동기회장은 석식비용을 지원했다. 기우회는 오는 9월의 28기우회 경부전 행사에 관한 논의도 이어갔다.

참석자 : 김부운 김용섭 김정유 김준배 박병준 박임철 양동욱 이관선 이승준 정연찬 G김종란 G김강희 <기사 24면에 넘김>

<기사 23면에서 받음>

33회 = 가족 어울림마당



지난 6월 19일(일) 금정산에서 열린 33가족어울림 마당에 부산·울산·마·창 친구들 40명이 모여 회포를 풀었다.

39회 = 동기모임



지난 7월 29일(금) 고교 청소년 야구대표 출신 이승현 동기가 운영 하고 있는 하단 '만포장횃집'에 24명의 친구가 모였다. 타지 거주 친구들이 멀리서 와 주었다. 박종국, 광기영, 하성포는 미리 온다 하였고 홍천상 교수도 참석하였다. 정순환 회장이 보모어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 찬조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횃집이 떠나가도록 즐겁게 보냈다.

동문회, 동기회 사안들을 얘기하고 전임회장 인사말, 차기회장 선출 등 다양한 얘깃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차는 그 자리에서 맥주 한잔하며 즐겼다. 29회 선배들(현응렬 사무총장 외)이 주류 일부 찬조.

참석자 : 공정환 광기영 김규웅 김대중 김유흥 김재정 김정남 김종엽 김형보 남호찬 노성수 박근태 박종국 서은식 윤원욱 이상학 이승현 이철원 정순환 정영설 정우영 하성포 하순호 홍천상

41회 = 제1회 41회 동기회장배 족구대회

지난 7월 17일(일) 제1회 동기회장배 족구대회를



대신동 꽃동네 나들목에서 가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41회 산악회 VS 포원야구단, 15점 5세트 선(□)3승제로 했다.

*선수소개=△산악회 : 안광근회장, 윤성한총무, 류지섭, 류재하(자), 문상현 △야구단 : 김인수단장, 김영철감독, 서상대, 정승서, 김신욱 △심판 : 김영철 동기회장.

1세트 : 야구단 승, 2세트 : 야구단 승, 3세트 : 듀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야구단 승.

경기 후 오리양념구이와 닭백숙으로 기력을 회복했다. 후식으로 산악회 안광근 회장이 비싼 커피를 쓰았다. 야구단에서 식대 전액을 지원했다.

찬조내역 : 서상대 5만원, 산악회 10만원, 야구단 상품권 15만원, 생수, 현수막

참석자 : 김신욱(사모님) 김영철 김인수 류재하(자) 류지섭 문상현(사모님) 서상대 안광근 윤성한 정승서 조원호(사모님)

43회 = 1박 2일 단합회

지난 6월 25~26일 남해 미라도르 펜션(32회 김상



권 동문 운영)에서 1박2일 단합회를 가졌다. 빗줄기가 오락가락하고 후텁지근한 장마철이지만 야외행사엔 아무런 문제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동기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힐링시간을 보냈다. 첫날 요트투어와 화식과 노래방 뒤풀이, 둘째날 남해 보리암 산책 등을 즐겼다.

집행부는 사전답사를 거쳐 꼼꼼한 준비를 했다. 남해의 사나이 송대성, 김영선 친구는 가이드와 여러 도움을 주었다. 38회 박준표 선배는 100만원어치의 회를 찬조했다. 32회 김상권 선배는 요트투어에다 현금·물품 찬조까지 제공했다.

찬조 : 이도경 30만원, 류법권 20만원, 이현우 10만원, 이진배 20만원, 김영선 20만원, 박승삼 한라산소주 2박스, 심문섭 발렌타인 30년산, 21년산 2병, 김영휘 기념타올, 송대성 흑마늘 20박스, 강병규 생탁 막걸리 1박스, 홀라조 게임비 6만원, 박준표(38회) 100만원어치 회, 김상권(32회) 요트투어+20만원+과일 바구니+와인.

참석자 : 김대영 김동헌 김수민 김영선 박경석 박승삼 배진국 서원택 송대성 심문섭 이광렬 이상필 이재용 이정렬 이진배 전순표 최동환 (가족 6명)

45회 = 6월 정기모임

지난 6월 17일 정기모임을 1차 사상 해운대연가, 2



차 사상 상상짬뽕에서 가졌다.

참석자 : 강동호 권우일 김동규 김병근 김상수 김성기 김성준 김중현 김창균 박준오 박현승 손창오 안형오 오문찬 윤성빈 이광석 이동희 이좌철 전준용 정행덕 조청래 조태성 최재근 황귀웅

45회 = 7월 정기모임 15일에 가져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안승진(39회) 선배가 20만



원 찬조했다. 매달하는 모임이지만 만날 때마다 즐겁다.

참석자 : 강동호 구자삼 김동규 김병근 김상수 김성준 김영주 김중현 김창균 김형석 박준오 박진환 신태호 안형오 오문찬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이성근 이좌철 정행덕 조태성 최상배 최재근 황귀웅

46회 = 재경과 홈커밍데이 준비 모임

지난 6월 10일(금) 집행부는 상경, 재경동기회 동기들과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관련 논의를 하였다.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서 재경동기들은 집행부의 추진 계획에 따르며 최대한 협조기로 약속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집행부는 장소 및 일정 잡기에 나서 오는 10월 29일 코모도호텔(150석 정도)에서 행사를 갖기로 최종결정했다(탈코로나19로 10월 중순~연말 부산 일대 호텔 거의가 예약 완료 상태라 함).

참석자 : (집행부) 최원석 이재광 김백권 서승진 강남구(재경섭외국장으로 임명)

(재경동기) 강진희 하성근 김기훈 전은전 김윤식 유영탁

46회 = 모교야구부 격려방문



지난 6월 16일(목)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이끈 우리 자랑스런 경남고 46회 정수찬 수석코치와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드롬 치킨 30마리, 피자 킹사이즈 10판, 콜라 24개를 전달하고 왔다. 김백권, 김대욱 동기가 바쁜 와중에 갔다오느라 수고했다. 또 이름 안 내고 십시일반 도와준 46회 동기들에 감사인사 전한다.

이튿날인 17일(금) 빅맥 60세트 후원. "동기 사랑은 모교 사랑~ 같이 가즈아!!"

<기사 25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4면에서 받음>
46회 = 동기회 모임



지난 6월 24일(금) 사상구 해운대 연가에서 동기모임을 가졌다. 탈코로나19로 정기 동기모임 재개 첫 스타트를 가지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오랜만에 즐거운 담소를 즐겼다. 이날 졸업 후 군생활로 거의 못 만나다 부경대학군단장(육군 중령)으로 부임한 김남욱 동기가 참석했다.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우승 경남고 수석코치 정수찬 동기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참석자 : 김남욱 김백권 김부규 김태영 김희택 서승진 신정일 양수성 오영훈 윤성곤 이동수 이재광 정수찬 최원석 홍이준

51회 = 동기회 모임

지난 6월 15일(수) 중앙동 '참치사랑'에서 동기회를 가졌다. 회장 최우영 외 동기 21명이 참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미있는 동기회를 만들기 위해 야구, 등산, 골프 분과를 만들어 진행 중에 있다. 같이 모여 소



주 한잔하고, 야구 및 등산, 골프를 하며 재미있게 지낼 동기들은 언제나 연락 요망.

참석자 : 김동언 김동주 도희종 박보순 박치균 반길호 서성호 신석진 신혁휴 신현식 오건진 오성진 유상일 윤원주 이영하 이정환 이지모 임용관 정유석 조민재 최우영 최환석

55회 = 동기회 모임



지난 6월 17일(금) 동기(이동현) 국밥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예상 밖으로 많은 친

용마언론인클럽, 참여도 제고 논의



부울경 용마언론인클럽(회장 조선·34회) 정기모임이 지난 6월 28일(화) 오후 민락동 용마Hits(김대식 31회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행사에 언론인 9명과 총동창회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이 남은 듯 원로언론인을 비롯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대화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 시간가는 줄 모르는 행사가 되었다.

강서리틀야구단, 전국 3위 입상 강서지구동창회 매년 후원 행사

강서지구동창회가 후원하는 강서리틀야구단이 지난 7월에 열린 제1회 세종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사진). 강서리틀야구단은 51회 이정우 감독과 51회 오건진 코치가 이끌고 있다. 강서지구동창회에서는 매년 강서리틀야구단에 후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서리틀야구단의 성적은 매우 대단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110개팀이 참가한

이날 이태석신부기념사업회와 최동원기념사업회에 대한 총동창회 차원의 참여문제가 거론돼 열린 대화가 오갔다. 이 자리서는 기존 단체에 참여보다는 총동창회 차원에서 새로운 기념사업을 개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언론인클럽은 이날 회원 참여도 제고를 위해 모임 일자(썩수달 마지막 화요일) 변경 모색, 원로언론인 모시기, 소통하는 선후배 참석 독려하기, 40회 이후 후배 발굴 및 별도 모임 갖기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허부남(37회·차기 사하지구동창회장) 동문이 100만원, 강병균(38회) 회원이 20만원을 찬조했다.

◇참석자=김기열(23회) 김종명 현응열(이상 29회·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상규(31회) 정용수(32회) 정윤희(36회) 강병균(38회) 윤원욱(39회·총동창회 사무국장) 이태욱(40회) 정홍준(42회) 고달우(47회).



대규모 대회에서 3위 입상 성적은 부산지역 꿈나무들의 전도가 양양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감독 동문은 "강서지구동창회에서 강서리틀야구단을 격려하고 응원해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가 모였다. 지난해 11월 27일(토) 55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기적같이 무사히 마치게 하고, 동기회를 성장시켜준 많은 선후배들의 격려와 사랑을 되새긴다. 이날 친구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고 함께 즐기면서 멋진 동기회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55회 동기모임에 도움을 준 멘토기수 45회 김상수, 권우일 선배께 감사드린다.

참석자 : 강문성 김대성 김정현 김태현 김현종 박기홍 박상인 박찬우 백광일 신동현 신민걸 안진영 윤승환 이동규 이동주 이동현 이영훈 이육한 이향림 장지훈 장현준 전민기 정균찬 정보영 정승윤 정철규 조중호 최범준 한재호 허준 황시우

56회 = 46회와의 만남



56회가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멘토기수인 46회 김백권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46회, 56회 집행부가 함께 모여서 식사 겸 술자리 제안이었다. 46회 동기회장 최원석 선배를 비롯하여 김백권, 서승진, 신정일, 이재광, 하성용, 강남구 선배와 56회 회장 장재환, 부회장 오민일, 강지훈, 사무차장 이승민 등이 모였다. 1차는 영화 '신세계'에 나온 화국반점, 2차는 '목포가'에서 가졌다.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 6월 모임



지난 6월 22일(수) 오후 6시 배내골참민물장어(북구 명촌동)에서 6월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갖는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날 회원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32명→22명)이 논의됐다.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해외 파견근무, 승진 등으로 인한 분사, 남양연구소 등 보직 변경이 원인이다.

참석자 :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진조석(39회) 정찬홍(43회) 김정민 유동욱(이상52회) 최석기(53회)

구덕산우회 = 문화탐방

구덕산우회(회장 서영대·28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020년 가을 설악산 일원 탐방 이후 연기되었던 문화탐방을 지난 6월 5일(일)~6일(월) 실시하였다. 몇 년 전부터 가족 동반행사를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남도답사로 첫째 날에는 부산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하여 벌교 조정래(태백산맥)문학관~목포도착~갯바위~남농기념관~근대역사관~해상 케이블카를 탐승하였다.

<기사 26면에 넘김>

요즘 어떻게?

<13회>

△허훈 = 부인상. 7월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에서 발인.

<18회>

△정기용 = 모친상. 7월 13일 착한전문장례식장 301호실에서 발인.

<24회>

△이병일 = 막내딸 성은 양 8월 13일(토) 오후 3시 서울 라비투스 단독홀에서 결혼.

<25회>

△이용우 = 모친상. 6월 18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301호실에서 발인.

<26회>

△김종우 = 모친상. 7월 17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형 = 부인상. 7월 19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302호실에서 발인. △손욱호 = 모친상. 6월 7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서 발인.

<28회>

△김명수 = 모친상. 7월 2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명영 = 부친상. 7월 19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창수 = 모친상. 6월 23

일 부산 좋은삼선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영희 = 빙부상. 7월 18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정권 = 빙부상. 6월 30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박홍식 = 빙모상. 6월 22일 부산반송장례식장 2빈소에서 발인. △배기경 = 장남 정호군 8월 13일(토) 오후 1시 JW메리어트 호텔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이원경 = 빙모상. 6월 30일 부산 좋은삼선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발인. △이종욱 = 모친상. 7월 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에서 발인. △정재화 = 빙모상. 7월 18일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102호실에서 발인. △최경림 = 장남 윤(Alex) 군 7월 23일(토) 오후 5시 30분(D.C. 현지 시각)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 Washington D.C.에서 결혼.

<31회>

△김대식 = 모친상. 6월 13일 동래착한전문장례식장 VIP1(1층)에서 발인. △김상용(대구) = 모친상. 6월 28일 고신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에서 발인. △서규영 = 장남 원덕 군 6월 18일(토) 오후 3시 30분 해운대 마라나 웨딩홀에서 결혼. △최봉근 = 모친상. 6월

17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5분향실에서 발인.

<33회>

△김춘복 = 모친상. 7월 10일 발인. △박영배 = 모친상. 6월 8일 발인. △민병현 = 모친상. 6월 14일 발인. △이순환 = 모친상. 4월 22일 발인. △이영환(해외) = 모친상. 5월 11일 발인.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우영(10회) = 5월 14일 작고
△김영식(11회) = 6월 7일 작고
△이영진(20회) = 6월 30일 작고
△이문수(21회) = 5월 작고
△조준현(32회) = 7월 6일 작고

<34회>

△황인철 = 부친상. 7월 10일 고신대복음병원 장례식장 203호에서 발인.

2022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2년 7월 27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7	44	66%	39	68	45	66%
2	0	0	0%	21	106	76	72%	40	50	25	50%
3	5	4	80%	22	96	68	71%	41	60	31	52%
4	6	5	83%	23	95	66	69%	42	39	21	54%
5	11	8	73%	24	118	83	70%	43	71	16	23%
6	20	11	55%	25	192	116	60%	44	50	19	38%
7	21	14	67%	26	109	71	65%	45	55	41	75%
8	23	13	57%	27	81	46	57%	46	38	32	84%
9	24	12	50%	28	90	76	84%	47	37	10	27%
10	43	27	63%	29	117	69	59%	48	12	8	67%
11	61	46	75%	30	115	71	62%	49	33	7	21%
12	75	60	80%	31	90	62	69%	50	57	23	40%
13	91	76	84%	32	51	31	61%	51	106	13	12%
14	68	49	72%	33	64	48	75%	52	135	22	16%
15	75	54	72%	34	38	27	71%	53	43	8	19%
16	82	66	80%	35	55	29	53%	54	90	8	9%
17	61	51	84%	36	66	48	73%	55	73	67	92%
18	92	61	66%	37	43	31	72%	56	11	2	18%
19	100	74	74%	38	51	34	67%	57이후	35	14	40%
Sub-total(1)	631 명			Sub-total(2)	1,096 명			Sub-total(3)	412 명		
미상	4 명			목표인원	4,000 명			구독료납부인원	2,143 명		
총발송부수	3,565 명										

<기사 25면에서 받음>



야경을 즐긴 후 신안군 자은도 펜션에서 1박하고, 둘째날에는 자은도의 무한의 다리~안좌도의 퍼플섬~강진 사의재를 둘러본 후 예향(한정식)에서 이른 저녁 후 많은 추억과 행복을 한아름 안고 부산으로 귀가하였다(22:00).

참가자: 이창흠+(19회) 김대원+(20회) 이종철(20회 대우) 박홍규 안형수+ 유홍석+ (이상 24회) 김지원 배재홍부인 태기섭+ (이상 27회) 김영출+ 서영대+ 이종태(이상 28회) 서민석+(30회) 남기태+(31회) 박종호(32회) 윤태환(37회) 이승철(44회) ('+' 표시는 부부동반)

동 정

박정국(30회), '자동차의 날' 은탑산업훈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공동 주최한 제19회 '자동차의 날' 기념 행사에서 박정국(30회·현대차 사장·사진) 동문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

미 LA 거주 박병철(20회) 동문, 회관 방문



안내를 받으며 회관 전체를 둘러보고 계단의 미니 역사관에서 감회에 젖기도 했다. 세 동문은 미국에서 가방 제조 판매사 '에베레스트'를 차려 큰 성공을 거둔 박병철(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LA 거주), 대구에서 온 삼성산업 대표이사 회장 허규판(" 세 번째), 은행지점장 출신으로 한때 역술가로 활동한 주창웅(" 첫 번째) 동문이다.

다. '자동차의 날'은 1999년 5월 12일 자동차수출 1,000만대 달성을 계기로 2004년부터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박 동문은 세계 최초로 초단거리 레이더 센서 및 후방 긴급자동제동 기술을 개발했고 국내 최초로 알파, 베타, 델타 엔진도 독자 개발했다. 또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와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아이오닉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특이구간 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용희(34회) 동문, '과학기술진로...' 필진 참여



이용희(34회) 동창회보 편집위원이 저자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Q&A식 과학기술 진로 안내서인 '과학기술진로 컨설팅 북'이 최근 출간되었다. 19명의 과학분야 전문가들이 공동 기획하고 집필한 이 책은 과학기술 진로 관련 옴니버스형으로 이 분야로의 진로 설정, 탐색, 미래, 직업, 직무의 이해 등에 도움을 준다. 진로에 고민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이공계 분야별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진로탐색과 설계를 조언해 준다.

